

大韓醫療氣功學會

대한의료기공학회지  
J. OF KOREAN ACADEMY OF MEDICAL GI-GONG  
Vol.18 No.1 2018.12.31.

1950년에서 2016년까지 한국에서 발표된 기공관련  
연구 동향

이재흥\* · 백지유\* · 조민균\* · 정재훈\* · 이은미\* · 안훈모\*

\* : 대한의료기공학회

ABSTRACT

Research Trends on *Gigong* in Korea from 1950 to 2016

Jae Heung Lee\*, Eun Mi Lee\*, Ji You Beag\*, Min Gun Cho\*, Jae Hun Jung\*,  
Hun Mo Ahn\*

\* : The Member of the Korean Academy of Medical Gi-Gong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rends of "*Gi-Gong*" related studies from 1950 to 2016 and to help guide the research direction of *Gigong* study.

**Methods** : The computerized Korean database was searched from 1950 to 2016. The search terms used were only Korean language terms such as '기', '기공', '도인', '명상', '생체에너지', '수련', '양생'.

· Received : 11 Oct. 2018 · Revised : 17 Oct. 2018 · Accepted : 28 Oct. 2018

Correspondence to : 안훈모(Hun Mo Ahn)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애기봉로 7번길 20-12번지 월곶한의원

Tel. 031-987-8471 Fax. 031-987-8472 E-mail : ahnpig@gmail.com

**Results** : 1. A total of 310,184 (155,565(1950~2007) + 13,705(2016) + 140,914(2008~2016)) studies were searched in this study. A total of 6,240 studies were finally selected as *Gigong* related studies.

2. In the results according to the Main Subject Categories(KCI;Korea Citation Index), the 'Humanities' was the largest with 2,686 studies and the 'Marine Agriculture, Fishery' was the least with 10 studies.

3. In the results according to the Middle Subject Categories(KCI;Korea Citation Index), the 'Philosophy' was the largest with 1,014(16.26%) studies.

4. A result of the *Gigong* Categories showed that the 'Philosophy of *Gi*' was the highest with 2,151(33.82%) not including duplication.

5. As a result of Research Method, the most frequently used method was 'Analysis Research' with 4,199(67.33%) studies.

6. In the author search, 'Kim Nak Pil' was searched 112 times and was the most..

7. The journal that published the most relevant studies with *Gigong* was 『Conference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Jungshin Science』 (189), and the university that had the largest number of studies related to *Gigong* was 'Wonkwang University'(212).

**Conclusions** : 1. The number of *Gigong* related studies had increased rapidly from the late 1990s to the early 2000s, and reached to a peak in 2007 and has been gradually increasing since 2008.

2. The three major academic fields of *Gigong* related studies are Thought Field, Korean Medicine Field, and Kinesic Field.

3. In the *Gigong* related studies, the best authority is 'Kim Nak-pil' and the most active academy is the 'Korean Society OF Jungshin Science'.

4. Although most categories of *Gigong* have been generally studied evenly, studies on External *Gi* Therapy and Taoist Sexual Practices are very insufficient.

\* **Keywords** : *Gigong*, *Qigong*, systematic review, 기공, 체계적 분석.

## I. 緒論

2016년 본 연구진은 2008년~2016년 상반기까지의 기공관련 연구 동향(이하 『2016년 논문』)[1]을 발표하였다. 이는 본래 『2008년 Han의 논문』[2]을 모델로 하여 같은 방법과 형식으로 2008년 이후의 기공관련 연구 동향을 분석하려 하였으나 기공에 대한 범주와 인식의 차이, 기공관련 연구 논문 선정에 대한 관점 차이 등으로 이 논문과 같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진은 기공관련성의 범주를 기에 대한 연구, 도교사상, 명상으로까지 확장시키고, 새로운 기공관련 논문 선정기준과 기공연구의 분야를 9개 분야로 구분하는 등의 변화를 주어 『2016년 논문』을 발표하게 되었다. 그리고 비록 다른 선정 기준이라 하여도 『2008년 Han의 논문』과 비교하여 변화된 동향을 분석하였으나 비교 분석이 일관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현대적 연구가 비교적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1950년을 시작연도로 정하고 이후 2007년까지의 연구에 대해서 『2016년 논문』과 같은 선정기준과 방법으로 분석하게 되었다. 또한 『2016년 논문』에서 상반기까지만 진행되었던 2016년을 재검색하여 분석함으로써 미완된 부분을 보완하였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1950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공관련 연구 동향을 일관되게 분석할 수 있었으니, 본 연구가 향후 기공관련 연구자들에게 다소나마 좋은 참고가 되기를 희망해본다.

## II. 研究對象 및 方法

### 1. 연구 대상

#### 1) 연구 대상 논문 선정 과정

1950년부터 2016년 이후 기공관련 연구의 체계적 분석(Systematic Review)을 위한 연구 대상 논문의 선정과정은 『2016년 논문』에서 검색, 조사, 선정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따라서 1950년부터 2007년까지는 새롭게 검색, 조사, 선정하였고, 2008년부터 2015년까지는 『2016년 논문』에서 선정된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상반기까지만 진행되었던 2016년은 이전 조사된 내용을 무시하고 전기간을 재검색, 조사, 선정하였다.

### (1) 논문 검색사이트

국내의 기공관련 논문을 선정하기 위한 논문 검색사이트는 주요 학술논문 검색사이트인 국회도서관(www.nanet.go.kr), 한국교육학술정보원(www.riss4u.net), 한국학술정보(kiss.kstudy.com)를 이용하였다. 『2016년 논문』에서 사용한 한국의학논문데이터베이스(kmbase.medic.or.kr)는 여타사이트에 비해 규모가 작고, 중복되지 않는 논문의 존재가능성이 낮아서 배제시켰다(Table 1). 이하 각각 약어로 NAL, RISS, KISS를 사용하였다.

**Table 13. Search Site for Selecting *Gigong* Related Research**

Title	Publisher	Abbr.	URL
National Assembly Library 국회도서관	National Assembly Library of the Republic of Korea	NAL	www.nanet.go.kr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system 한국교육학술정보원	Korea education &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RISS	www.riss4u.net
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한국학술정보(주)	Korean Studies Information CO.	KISS	kiss.kstudy.com

### (2) 검색 대상 및 검색 기간

앞서 언급하였듯이 새롭게 검색하는 검색 대상 기간은 1950년에서 2007년에 발간된 논문으로 정하였고, 2008년에서 2015년까지는 『2016년 논문』에서 선정된 논문을 그대로 사용하였기에 다시 검색하지 않았으며, 2016년에 발간된 논문은 다시 검색하였다. 검색 작업을 실시한 기간은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였다.

### (3) 검색어

상기 검색사이트에서 검색에 사용한 검색어는 『2016년 논문』과 동일하게 "기, 기공, 도인, 수련, 양생, 생체에너지" 였다.

### (4) 검색 논문 정리 및 선정 과정

상기 검색어로 검색된 1950년~2007년과 2016년 발행 논문은 검색사이트, 검색어, 논문명, 저자,

발행지, 발행처, 발행연도, 키워드 등의 정보를 취합하여 엑셀파일(\*.xlsx)로 작성, 정리하였다. 정리된 자료를 다음과 같은 『2016년 논문』에서 마련한 기공관련 논문 선정의 기준과 1-3단계의 선정 과정을 동일하게 적용시켜 기공관련 논문으로 선정하였다. 이중 2006년 ~ 2009년 발간된 논문에 대해서는 이전 조사내용(『2016년 논문』에서 선정된 내용)과 새로 조사된 내용 사이에 중복가능성이 있어서 중복 여부를 조사해 중복 논문은 낮은 연도분에서 제외시켰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새로 조사된 2016년분과 이전에 조사된 2014년 ~ 2015년분을 대조하여 중복여부를 확인해 중복논문을 제외시켰다.

## 2) 기공관련 연구 대상 논문 선정 규정 및 기준과 단계<sup>주1</sup>

### (1) 기공의 범주

기공의 범주를 광의적으로 해석한 “儒家·佛家·道家·카톨릭·YOGA·武術家·醫家 등 各門各派의 修行法들이 모두 氣功의 범주”와 “예컨대 儒家에서는 靜功 또는 靜坐功·存心養性法 등으로, 佛家에서는 禪·坐禪·參禪·明心見性法 등으로, 道家에서는 煉丹法·性命雙修法·修心煉性法 등으로, 카톨릭에서는 靜坐默想, YOGA에서는 觀法·內觀法, 武術家에서는 內功, 醫家에서는 養生法·導引按蹻·導引行氣 등으로 불렸으나, 오늘날의 사고방식으로 보면 모두 氣功의 前身이라 할 수 있다.”라고 언급한 Kim[3]에 기공의 정의와 범주를 채용하였다.

### (2) 기공관련 연구 논문의 규정

상기의 기공의 범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기공관련 연구 논문을 규정하였다.

- ① 氣에 대한 각종 연구를 기공관련 논문으로 규정한다.
- ② 각문각파의 수련법 즉, 정좌법, 존심양성법, 참선법, 명심견성, 성명쌍수, 내단법, 내공법, 도인법, 양생법, 도인안교법, 행기법, 호흡법, 명상 등에 대한 각종 연구를 기공관련 연구 논문으로 규정한다.
- ③ 각문각파의 수련법 중 심신수련법이라는 기공의 범주와는 일맥 상통하나 서양의 가톨릭, 기독교의 수양법, 인도의 요가 수련법 등은 그 기원의 차이가 크고,

---

주1. 『2016년 논문』에서 규정한 내용과 같은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기에 동일한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였다.

氣에 대한 관념과 개념이 명확히 포함되어있지 않아 기공 관련 연구 논문에서 제외한다.

- ④ 태권도, 유도, 합기도, 검도 등의 현대 무술은 비록 그 기원이 기공과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이미 현대적 의미의 스포츠로서 개념이 정립되었기에 기공 관련 연구 논문에서 제외한다.
- ⑤ ③번과 ④번에서 제외되는 연구에 해당되어도 ①번, ②번과 융복합된 연구 논문은 기공관련 연구 논문으로 규정한다.

### (3) 기공관련 연구 논문 선정 기준 및 단계

이상의 기공관련 연구논문의 규정을 토대로 아래와 같은 선정기준과 단계를 적용하였다.

#### <1단계 : 키워드 기준 선정 단계>

- 가. 논문제목 또는 키워드에 포함된 “기”, “기공”, “도인”, “양생”이라는 단어가 명백히 “氣”, “氣功”, “導引”, “養生”을 뜻하는 논문은 기공관련 연구 논문으로 선정한다.
- 나. 논문제목 또는 키워드에 “기학(氣學)”, “기철학(氣哲學)”, “이기론(理氣論)”, “주기론(主氣論)”, “외기발공(外氣發功)”, “선도(仙道)”, “단전(丹田)”, “내단(內丹)”, “단학(丹學)”, “좌선(坐禪)”, “조식(調息)”, “주천(周天)”, “미병(未病)”, “대체의학”이라는 단어가 포함되면 기공 관련 논문으로 선정한다.
- 다. 논문제목 또는 키워드에 “명상(冥想)”, “마음챙김”, “관심법(觀法法)”, “지관법(止觀法)”, “뇌호흡”이라는 단어가 포함되면 기공관련 논문으로 선정한다.
- 라. 논문제목 또는 키워드에 “태극권(太極拳)”, “타이치”, “팔단금(八段錦)”, “역근경(易筋經)”, “육자결(六字訣)”, “오금희(五禽戲)”, “참장공(站樁功)”이라는 단어가 포함되면 기공관련 논문으로 선정한다.

#### <2단계 : 내용 기준 선정 단계>

- 마. 가-라에 선정되었지만 초록, 목차 등을 살펴보았을 때 기공관련 용어들이 단순한 언급에 그친다거나 특정 종교의 홍보, 포교 등의 종교적 목적과 성향이 짙은 내용의 논문 등은 제외한다.

- 바. 논문제목 또는 키워드에 “마왕퇴(馬王堆)”, “행기옥패명(行氣玉佩銘)”, “참동계(參同契)”, “포박자(抱朴子)”, “양성연명록(養性延命錄)”, “황정경(黃庭經)”, “제병원후론(諸病源候論)”, “비급천금요방(備急千金要方)”, “준생팔전(遵生八牋)”, “활인심방(活人心方)”, “용호비결(龍虎秘訣)”, “삼일신고(三一神誥)”라는 단어가 포함되면, 목차, 초록 등을 살펴보고 가-라에 언급된 용어가 핵심적인 주제일 경우 기공관련 논문으로 선정한다.
- 사. 논문제목 또는 키워드에 “갈홍(葛洪)”, “손사막(孫思邈)”, “김시습(金時習)”, “서경덕(徐敬德)”, “퇴계이황(退溪李滉)”, “정렴(鄭謙)”, “곽재우(郭再祐)”, “최한기(崔漢綺)”라는 단어가 포함되면, 목차, 초록 등을 살펴보고 가-라에 언급된 용어가 핵심적인 주제일 경우 기공관련 논문으로 선정한다.
- 아. 논문제목 또는 키워드에 “생체에너지”란 단어가 포함되면, 목차, 초록 등을 살펴보고 “생체에너지”의 개념이 “氣”와 같거나 유사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공관련 논문으로 선정한다.

<3단계 : 초록 형태, 중복 제거 단계 >

- 자. 가~아에 선정된 논문 중 학술대회 및 심포지엄에서 1-2페이지 분량의 초록 형태로 발표된 자료나 보고서, 잡지기사 등은 제외한다.
- 차. 가~아에 선정된 논문 중 제목, 저자, 초록, 목차 등을 살펴보았을 때 중복되었다고 판단되는 논문 중, 학위논문과 학술논문이 있을 경우 학위논문을 선정하고 나머지는 중복 논문으로 제외시킨다.
- 카. 가~아에 선정된 논문 중 제목, 저자, 초록, 목차 등을 살펴보았을 때 중복되었다고 판단되는 논문 중, 발표연도가 다른 경우는 연도가 앞선 논문을 선정한다.

## 2. 연구 방법

### 1) 연도별 분류

선정된 자료를 연도별로 분류하였다. 분류된 내용 중 『2016년 논문』에서 조사된 2008년분은 2007년분과 중복된 내용이 있어 일부 조정되었고, 2016년분 또한 재조사하였기에 2014~2015년분과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였고, 하반기 분량이 새로 추가, 증가되었다.

## 2) 연구 주제별 분류

선정된 자료를 연구 주제별로 분류하였는데, 학술논문의 경우 발행지의 KCI(Korea Citation Index; 한국학술지인용색인)<sup>주2</sup>에 등록된 분류 구분을 따랐고, KCI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발행처를 중심으로 KCI에 등록되어 있는 유사 발행지를 참조하여 임의 파악했으며, 학위논문의 경우 저자의 전공을 중심으로 KCI의 분류 구분(Table 2 참조)에 따라 임의 파악하였다.

**Table 14. Subject Categories of KCI(Korea Citation Index)**

Main	Middle
Humanities (인문학)	Lexicography(사전학), History(역사학), Philosophy(철학), Religious Studies(종교학), Christian Theology(기독교신학), Catholic Theology(가톨릭신학), Confucian Studies(유교학), Buddhist Studies(불교학), Linguistics(언어학), Literature(문학),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한국어와문학),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중국어와문학),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일본어와문학), Other Oriental Languages and Literature(기타동양어문학),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영어와문학), French Language and Literature(프랑스어와문학), German Language and Literature(독일어와문학), Spanish Language and Literature(스페인어와문학), Russian Language and Literature(러시아어와문학), Western Classical Languages and Literature(서양고전어와문학),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Studies(통역번역학), Other Humanities(기타인문학)
Social Science (사회과학)	Social Science in general(사회과학일반), Political Science(정치외교학), Economics(경제학), Agricultural Economics(농업경제학), Business Management(경영학), Accounting(회계학), International Trade(무역학), Sociology(사회학), Social Welfare(사회복지학), Area Studies(지역학), Anthropology(인류학), Education(교육학), Law(법학), Public Administration(행정학), Public Policy(정책학), Geography(지리학), International/Regional Development(국제/지역개발), Tourism(관광학), Journalism and Broadcasting(신문방송학), Military Science(군사학), Psychological Science(심리과학), Other Social Science(기타사회과학)
Natural Sciences (자연과학)	Natural Science General(자연과학일반), Mathematics(수학), Statistics(통계학), Physics(물리학), Astronomy(천문학), Chemistry(화학), Biology(생물학), Earth Science(지구과학), Geology(지질학), Atmospheric Sciences(대기과학), Oceanography(해양학), Life Sciences(생활과학), Other natural science(기타자연과학)
Engineering (공학)	Engineering in general(공학일반), Mechanical Engineering(기계공학), Automotive Engineering(자동차공학), Aerospace Engineering(항공우주공학), Chemical Engineering(화학공학), Polymer Engineering(고분자공학), Ergonomics(생물공학), Control and Instrumentation Engineering(제어측정공학), Electrical engineering(전기공학),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재료공학), Environmental Engineering(환경공학), Electronics/Communications Engineering(전자/정보통신공학), Computer Science(컴퓨터학), Civil Engineering(토목공학), Architectural Engineering(건축공학), Industrial Engineering(산업공학), Safety Engineering(안전공학), Nuclear Engineering(원자력공학), Marine Engineering(조선공학), Ocean Engineering(해양공학),

주2. <https://www.kci.go.kr/kciportal/ci/clasSearch/ciSereClasList.kci>



	Fiber Engineering(섬유공학), Resources Engineering(자원공학), Metallurgical Engineering(금속공학), Traffic Engineering(교통공학), Biomedical Engineering(의공학), Agriculture engineering(농공학), Other Engineering(기타공학)
Medicine and Pharmacy (의약학)	General Medicine(의학일반), Anatomy(해부학), Physiology(생리학), Biochemistry(생화학), Pathology(병리학), Pharmacology(약리학), Microbiology(미생물학), Preventive Medicine/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예방의학), Immunology(면역학), Internal Medicine(내과학), General Surgery(일반외과학), Pediatrics(소아과학), Obstetrics and Gynecology(산부인과학), Psychiatry(정신의학), Orthopedic Surgery(정형외과학), Neurosurgery(신경외과학), Cardiothoracic Surgery(흉부외과학), Plastic Surgery(성형외과학), Ophthalmology(안과학), Otorhinolaryngology(이비인후과학), Dermatology(피부과학), Urology(비뇨기과학), Radiology(방사선과학), Anesthesiology(마취과학), Rehabilitation Medicine(재활의학), Physical Therapy(물리치료학), Working Therapeutics(작업치료학), Neurology(신경과학), Clinical Pathology(임상병리학), Family Medicine(가정의학), Emergency Medicine(응급의학), Dentistry(치의학), Veterinary(수의학), Nursing Science(간호학), Korean Medicine(한의학), Pharmacy(약학), Other Medicine and Pharmacy(기타의약학)
Marine Agriculture, Fishery (농수해양학)	Agriculture(농학), Forestry(임학), Landscape Architecture(조경학), Livestock science(축산학), Fishery science(수산학), Marine Transportation Studies(해상운송학), Food Science(식품과학)
Arts and Kinesiology (예술체육학)	Arts in general(예술일반), Musicology(음악학), Art (미술), Design(디자인), Costumes(의상), Beauty(미용), Theater(연극), Film(영화), Kinesiology(체육), Dance(무용), Other Arts and Kinesiology(기타예술체육)
Interdisciplinary Studies (복합학)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과학기술학), Technology Policy(기술정책),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문헌정보학), Gender Studies(여성학), Cognitive Science(인지과학), Brain Science(뇌과학), Affective Science(감성과학), Interdisciplinary Research(학제간연구)

### 3) 기공 분야별 분류

기공의 분야별 분류는 『2016년 논문』에서 마련한 분류와 동일하게 아래와 같이 9개의 분야로 분류하였다.

#### (1) 기공일반(General Gigong : GG.)

기공의 개념, 분류, 역사 등의 기공에 대한 일반적 사항과 기공의 여러 분야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연구.

#### (2) 기과학(Science of Gi : SG.)

기 또는 생체에너지의 과학적 규명, 또는 과학적 활용 등에 대한 연구.

#### (3) 기철학 (Philosophy of Gi : PhG.)

기의 개념, 구분, 분류, 역사, 기철학, 기의 운행, 기와 관련된 문학, 예술, 문화적 활용 등에 대한 연구.

#### (4) 내단(Nae-Dan : ND.)

내단법, 호흡법, 단학, 주천, 뇌호흡, 특이공능, 신선, 선도 등 기공의 분류상 조식법, 복이법 등에

해당하는 공법 또는 사상의 개념, 역사, 활용 등에 대한 연구.

(5) 도인(Do-In : DI.)

태극권, 역근경, 오금회, 경기공, 무술, 체조 등 기공의 분류상 도인법에 속할 수 있는 공법들의 개념, 역사, 방법, 활용 등의 연구.

(6) 명상(Meditation : Mdt.)

참선법, 명상법, 호흡명상법, 지관명상법, 마음챙김 등의 개념, 역사, 방법, 활용 등에 대한 연구.

(7) 방중(Taoist Sexual Practices : TSP.)

방중술, 성생활 등 기공의 분야에서 방중에 해당하는 내용의 개념, 역사, 방법, 활용 등에 대한 연구

(8) 양생(Life Nurturing : LN.)

양생, 수양, 장수, 기거양생, 정신양생, 음식양생, 벽곡, 미병 등, 양생이란 용어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지는 연구.

(9) 외기발공(External Gigong Therapy : EGT.)

외기발공에 대한 개념, 역사, 생체실험, 임상실험, 조사, 분석, 방법, 활용 등의 연구.

#### 4) 연구 방법별 분류

연구 방법 분류 역시 『2016년 논문』과 동일하게 이지관[4]이 사용한 아래와 같은 4가지 연구 방법으로 분류하였다(Table 3).

**Table 15. Classification of Study Method**

Classification	Method
Descriptive Research 기술연구	Surveys(Questionnaires, Personal Interviews), Case Research, Observational Research, Correlational Research, Developmental Research, etc. 조사연구(질문지법, 면접법), 사례 연구, 관측연구, 상관연구, 발달연구 등
Analysis Research 분석연구	Sociohistorical Research, Philosophical Research, Literature Analysis Research, Meta-Analysis, etc. 사회역사적 연구, 철학적 연구, 문헌분석연구, 메타분석연구 등
Experimental Research 실험연구	Pre-Experimental Research, True-Experimental Research, Quasi-Experimental Research, etc. 선형실험설계, 진형실험설계 및 유사실험설계 등
Qualitative Research 질적연구	Life History Research, Narrative Analysis Research, Phenomenological Research, Grounded theory Research, Ethnographic Research, Case Research, etc. 생애사 연구, 내러티브 연구, 현상학적 연구, 근거이론연구, 문화기술지 연구, 사례 연구 등

#### 4) 저자분석

기공관련 논문으로 선정된 연구의 연구자에 대한 분석은 연구를 발표하거나 참여한 논문 수를 집계하여 10편 이상이 된 연구자를 선정, 분석하였다.

학술논문은 주 저자와 공저자로 구분하여 발표(참여)수를 집계하였고, 학위논문의 경우는 주저자와 지도교수로 구분하여 발표(지도)수를 집계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각각 집계된 학술과 학위논문 전체를 통합하여 주저자와 공저자(지도교수)에 참여한 모든 수를 합산 집계하여 가장 많은 순으로 상위 10~20여명을 선정, 분석하였다.

논문 수 집계 과정 중 동명이인은 무시하였기에 일부 오류가 있을 한계점이 존재함을 밝힌다.

#### 5) 발행처 및 발행지 분석

발행처 및 발행지 역시 가장 많은 논문 수를 발표한 발행처와 발행지를 20여 곳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발행처 및 발행지는 종종 명칭을 바꾸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사용하는 명칭으로 통합 변경하여 집계하였다.

### 3. 용어의 통일

본 연구에서는 ‘氣’에 대한 영문표기를 ‘G’로 통일한다. 이는 기공의 원류가 백두산민족(한민족)에 있으며, 한국 기공이 중국 기공과 다른 독창성과 우수성이 있음을 천명하기 위해 한국식 발음으로 한다. 따라서 본문에서 고유명사, 약어에 사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탤릭 문자형으로 처리하였다.

## III. 결과

### 1. 기공관련 연구 논문 선정 결과

#### 1) 검색 결과

##### (1) 1950-2007년 발행 논문 검색 결과

1950-2007년 발행된 논문을 대상으로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3곳의 논문 검색사이트에서 7개

의 검색어를 통해 검색한 결과 총 155,565개의 논문이 검색되었다(Table 4).

**Table 16. Number of Searched Studies Published from 1950 to 2007.**

Search Site	<i>Gi</i> 기	<i>Gigong</i> 기공	<i>Doin</i> 도인	Meditation 명상	Bioenergy 생체에너지	training 수련	Life nurturing 양생	Total
NAL	16,765	23,060	49,843	2,004	33	4,278	2,416	98,399
Thesis	6,327	13,934	35,138	907	13	2,148	1,393	59,860
J.P.	10,438	9,126	14,705	1,097	20	2,130	1,023	38,539
RISS	19,756	5,029	4,215	1,675	726	5,443	1,741	38,585
Thesis	9,969	1,935	2,579	866	407	2,139	947	18,842
J.P.	9,787	3,094	1,636	809	319	3,304	794	19,743
KISS	11,514	3,206	418	645	133	2,080	585	18,581
Total	48,035 30.88%	31,295 20.12%	<b>54,476</b> <b>35.02%</b>	4,324 2.78%	<b>892</b> <b>0.57%</b>	11,801 7.59%	4,742 3.05%	<b>155,565</b> 100.00%

NAL : National Assembly Library  
 RISS :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System  
 KISS : 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J.P. : Journal Paper

(2) 2016년 발행 논문 검색 결과

2016년 발행된 논문을 대상으로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3곳의 논문 검색사이트에서 7개의 검색어를 통해 검색한 결과 총13,705개의 논문이 검색되었다(Table 5).

**Table 17. Number of Searched Studies Published in 2016.**

Search Site	<i>Gi</i> 기	<i>Gigong</i> 기공	<i>Doin</i> 도인	Meditation 명상	Bioenergy 생체에너지	training 수련	Life nurturing 양생	Total
NAL	1,335	1,241	3,836	286	32	301	196	7,227
Thesis	373	603	1,784	88	29	116	89	3,082
J.P.	962	638	2,052	198	3	185	107	4,145
RISS	2,824	529	660	374	132	536	209	5,264
Thesis	1,315	274	308	153	96	250	68	2,464
J.P.	1,509	255	352	221	36	286	141	2,800
KISS	852	89	53	71	8	103	38	1,214
Total	<b>5,011</b> <b>36.56%</b>	1,859 13.56%	4,549 33.19%	731 5.33%	<b>172</b> <b>1.26%</b>	940 6.86%	443 3.23%	13,705 100.00%

NAL : National Assembly Library  
 RISS :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System  
 KISS : 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J.P. : Journal Paper

2) 논문 선정 결과

(1) 1950-2007년 발행된 논문 중 기공관련 논문 선정 결과

위와 같이 검색된 155,565개의 논문 중 1-3단계의 선정 과정을 거쳐 기공관련 논문으로 최종 선정된 논문은 총3,832개이다. 참고로 중복 논문의 경우는 국회도서관(NAL)>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한국학술정보(KISS)의 우선 순위로 정하였기에 NAL에서 검색된 논문수가 자연스럽게 다수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Table 18. Number of Selected Studies of *Gigong* Related Studies Published from 1950 to 2007.**

	NAL	RISS	KISS	Total
D.T.	189	45		234
M.T.	910	128		1,038
J. P.	1,665	712	183	2,560
Total	<b>2,764</b> <b>72.13%</b>	885 23.09%	183 4.78%	3,832 100.00%

NAL : National Assembly Library

RISS :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System

KISS : 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D.T. : Doctoral Thesis, M.T. : Master's Thesis, J.P. : Journal Paper

## (2) 2016년 발행된 논문 중 기공관련 논문 선정 결과

2016년 발행분에 대한 1-3단계 선정 과정과 2014, 15년 중복 조사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된 논문은 총 406편이다. 이는 상반기까지만 조사되었던 『2016년 논문』에서 선정된 126편의 3.26배에 달하는 수치다(Table 7).

**Table 19. Number of Selected Studies of *Gigong* Related Studies Published in 2016.**

	NAL	RISS	KISS	Total
D.T.	23	17		40
M.T.	65	32		97
J. P.	148	105	16	269
Total	<b>236</b> <b>58.13%</b>	154 37.93%	16 3.94%	406 100.00%

NAL : National Assembly Library

RISS :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System

KISS : 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D.T. : Doctoral Thesis, M.T. : Master's Thesis, J.P. : Journal Paper

## 2. 선정된 연구 논문의 현황

### 1) 연도별 분류 결과

1950년 2016년까지 기공관련 논문으로 선정된 논문을 연도별로 분류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이

중 2008, 9년 발행분은 『2016년 논문』에서 조사된 내용과 본 논문에서 조사된 2006, 7년의 발행 분과의 중복여부를 조사해서 재선정한 결과가 반영되었고, 2010년에서 2015년까지는 『2016년 논문』에서 조사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였으며, 2016년은 새로 재조사한 내용이 반영되었다(Table 8).

선정 논문 총 6,240건을 연도별 분류 결과 1990년대부터 2007년까지 기공관련 논문이 빠르게 증가하더니 2008년부터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다가 2016년에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Fig. 1).

**Table 20. The Number of *Gigong* Related Studies by Publishing Year.**

Year	1950	1951	1952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D.T.															
M.T.													1		
J.P.									1				3	1	
Total									1				4	1	
Year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D.T.											1				
M.T.					1			1	1			1	2	3	
J.P.	4	1	1	5	3	5	6	9	9	9	9	13	9	14	9
Total	4	1	1	5	4	5	6	10	10	9	10	14	11	17	9
Year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D.T.				1	2	1		6		2					
M.T.	3	6	4	6	7	12	8	15	7	6					
J.P.	10	10	22	12	19	19	23	23	22	25					
Total	13	16	26	19	28	32	31	44	29	33					
Year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D.T.	5	9	4	10	12	12	11	11	5	12					
M.T.	16	13	22	26	25	29	25	25	47	40					
J.P.	29	30	47	70	63	63	101	105	134	154					
Total	50	52	73	106	100	104	137	141	186	206					
Year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D.T.	9	15	11	16	21	13	23	22	17	17					
M.T.	49	77	64	84	98	108	108	99	75	86					
J.P.	130	174	145	174	198	191	218	238	133	122					
Total	188	266	220	274	317	312	349	359	225	225					
Year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Total							
D.T.	28	16	29	31	32	30	40	474(7.60%)							
M.T.	74	78	72	53	64	54	97	1,691(27.10%)							
J.P.	168	151	154	172	173	173	269	4,075(65.30%)							
Total	270	245	255	256	269	257	406	6,240(100.00%)							

D.T. : Doctoral Thesis, M.T. : Master's Thesis, J.P. : Journal Pap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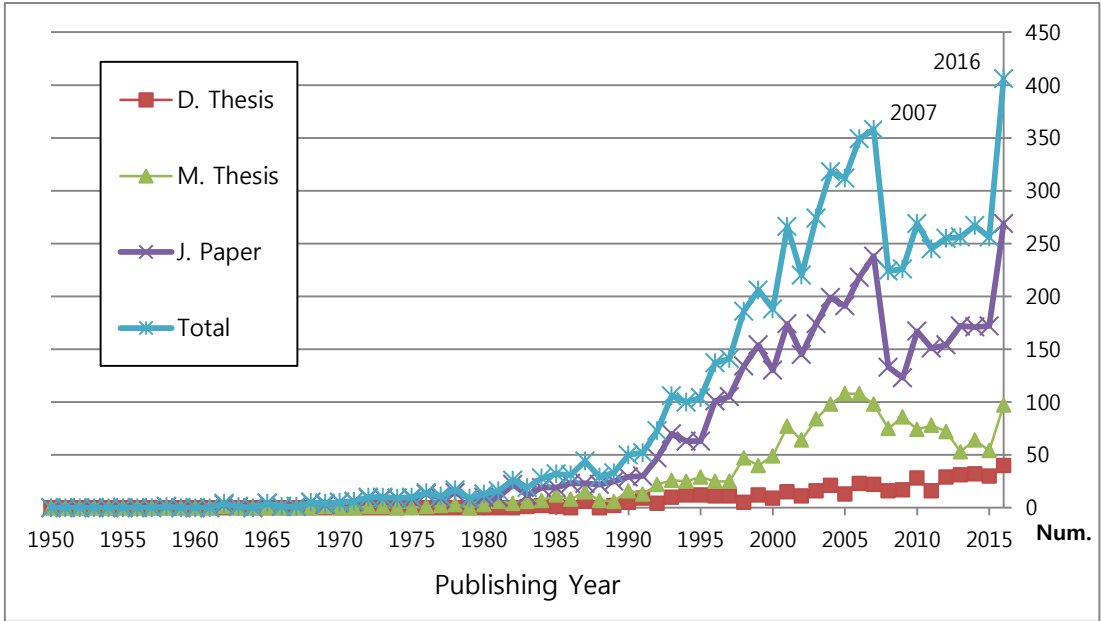


Fig. 1. The number of *Gigong* related studies by publishing year from 1950 to 2016

## 2) 연구 주제별 분류

### (1) 연구 주제별 대분류 결과

연구 주제별 대분류 결과 인문학 분야가 2,686(43.07%)건으로 가장 많았고, 농수해양 분야가 10(0.16%)건으로 가장 적었다. 인문학 분야 다음으로 사회과학, 의약학, 예술체육, 복합학 분야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공학, 자연과학 분야는 100건 이하로 적게 나타났다(Table 9).

Table 21. The Number of *Gigong* Related Studies by Subject Categories.

Studies	Hum.	SS.	Nat.	Eng.	Med.	Agri.	Arts.	Int.	Total
D.T.	186	84	2	6	97	2	92	5	474
M.T.	491	691	3	17	231	1	252	5	1,691
J.P.	2,009	494	37	76	703	7	408	341	4,075
Total	<b>2,686</b> <b>43.07%</b>	1269	42	99	1,031	<b>10</b> <b>0.16%</b>	752	351	6,240

Hum. : Humanities(인문학)

Nat. : Natural Sciences(자연과학)

Med. : Medicine and Pharmacy(의약학)

Arts. : Arts and Kinesiology(예술체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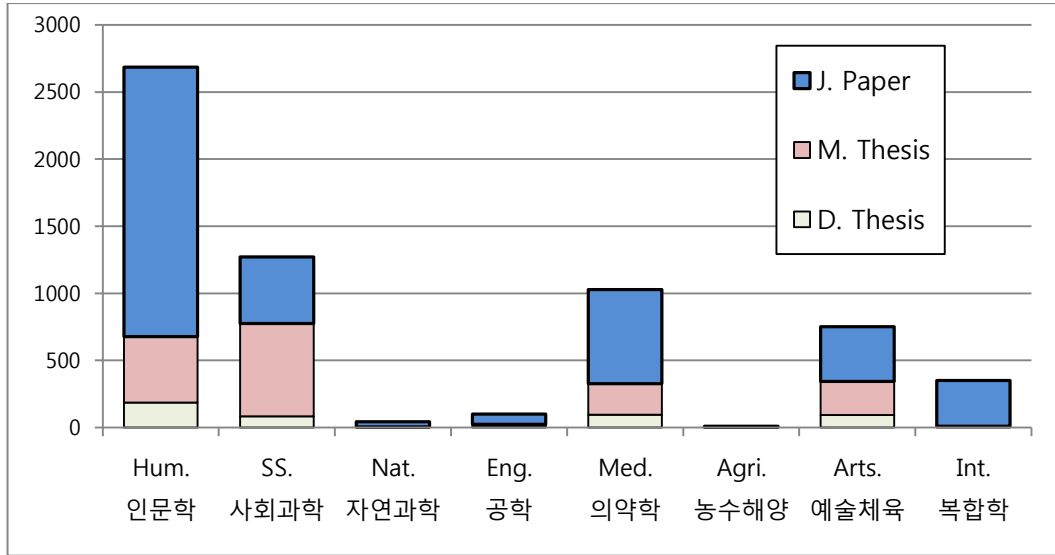
D.T. : Doctoral Thesis, M.T. : Master's Thesis, J.P. : Journal Paper

SS. : Social Science(사회과학)

Eng. : Engineering(공학)

Agri. : Marine Agriculture, Fishery(농수해양)

Int. : Interdisciplinary Studies(복합학)



**Fig. 2. The number of *Gigong* related studies by Subject Categories.**

(2) 연구 주제별 중분류 결과

연구 주제별 중분류는 『2016년 논문』 작성 당시 KCI의 분류내용과 2018년 5월 현재 분류 내용에 약간의 변화가 있어서 이에 따른 일부 조정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경 내용이 반영되고, 각 연구 주제 대분류별로 중분류한 내용의 결과는 아래와 같이 나타났다. 전체 중분류 항목 중 철학분야(1,014건:16.26%)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7, Fig 10).

① 인문학(Hum. : Humanities) 분야 중분류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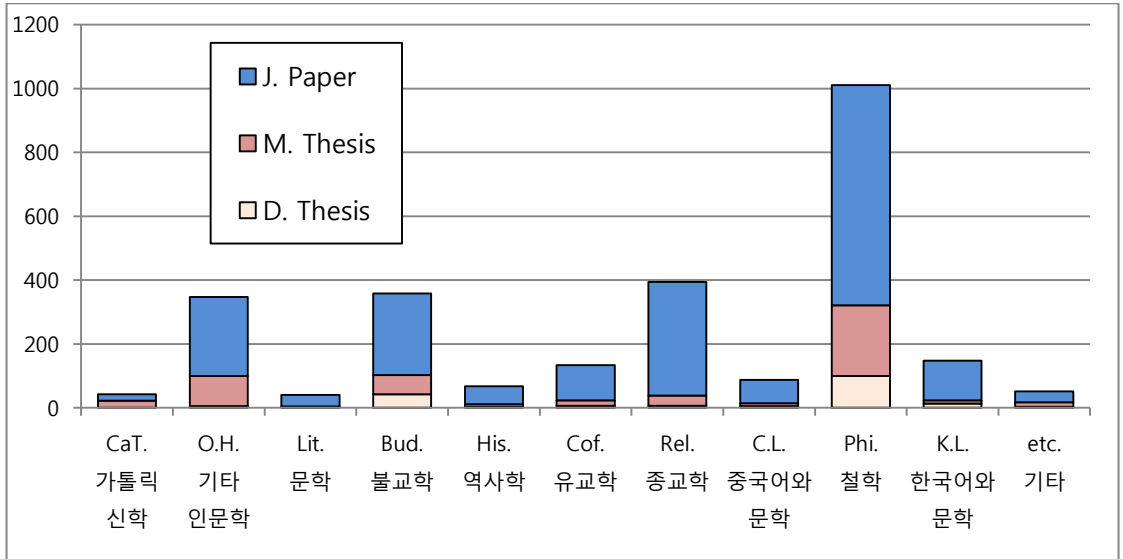
인문학 분야 중분류 결과 철학 분야가 1,014(37.7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종교학(392건), 불교학(359건), 기타인문학(35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0, Fig. 3).

**Table 22. The Number of *Gigong* Related Studies by Middle Subject Categories in Humanities.**

Humanities(Hum. : 인문학)												
Studies	CaT.	O.H.	Lit.	Bud.	His.	Cof.	Rel.	C.L.	Phi.	K.L.	etc.	Total
D.T.		5	2	43	3	6	6	5	100	13	3	186
M.T.	22	95	2	60	8	17	33	9	221	10	14	491
J.P.	21	254	37	256	57	104	353	74	693	125	35	2,009
Total	43	354	41	359	68	127	392	88	<b>1,014</b>	148	52	2,686
	1.60%	13.18%	1.53%	13.37%	2.53%	4.73%	14.59%	3.28%	<b>37.75%</b>	5.51%	1.94%	100%



CaT. : Catholic Theology(가톨릭신학)      O.H. : Misc. Humanities(기타인문학)  
 Lit. : Literature(문학)                      Bud. : Buddhism(불교학)  
 His. : History(역사학)                      Cof. : Confucianism(유교학)  
 Rel. : Religion(종교학)                    C.L. : Chinese/Chinese Literature(중국어와문학)  
 Phi. : Philosophy(철학)                    K.L. : Korean/Korean Literature(한국어와문학)  
 D.T. : Doctoral Thesis, M.T. : Master's Thesis, J.P. : Journal Paper



**Fig. 3. The number of *Gigong* related studies by Middle Subject Categories in Humanities.**

② 사회과학(SS. : Social Science) 분야 중분류 결과

사회과학 분야 중분류 결과 교육학 분야가 672건(52.87%)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심리과학분야가 373(29.35%)건으로 두 분야가 대부분(82.22%)을 차지하였다(Table 11, Fig. 4).

**Table 23. The Number of *Gigong* Related Studies by Middle Subject Categories in Social Science.**

Social Science(SS. : 사회과학)										
Studies	Edu.	OSS.	SoS.	Soc.	PsS.	PoS.	Geo.	PuA.	etc.	Total
D.T.	37	4		1	37	1	2		2	84
M.T.	440	4	23		170	19	13	6	16	691
J.P.	194	23	15	22	166	18	2	8	46	494
<b>Total</b>	<b>671</b>	<b>31</b>	<b>38</b>	<b>23</b>	<b>373</b>	<b>38</b>	<b>17</b>	<b>14</b>	<b>64</b>	<b>1,269</b>
	<b>52.88%</b>	<b>2.44%</b>	<b>2.99%</b>	<b>1.81%</b>	<b>29.39%</b>	<b>2.99%</b>	<b>1.34%</b>	<b>1.10%</b>	<b>5.04%</b>	<b>100%</b>

Edu. : Education(교육학)                               OSS. : Other Social Science(기타사회과학)  
 SoS. : Social Service(사회복지학)                Soc. : Sociology(사회학)  
 PsS. : Psychological Science(심리과학)        PoS. : Political Science(정치외교학)  
 Geo. : Geography(지리학)                         PuA. : Public Administration(행정학)  
 D.T. : Doctoral Thesis, M.T. : Master's Thesis, J.P. : Journal Pap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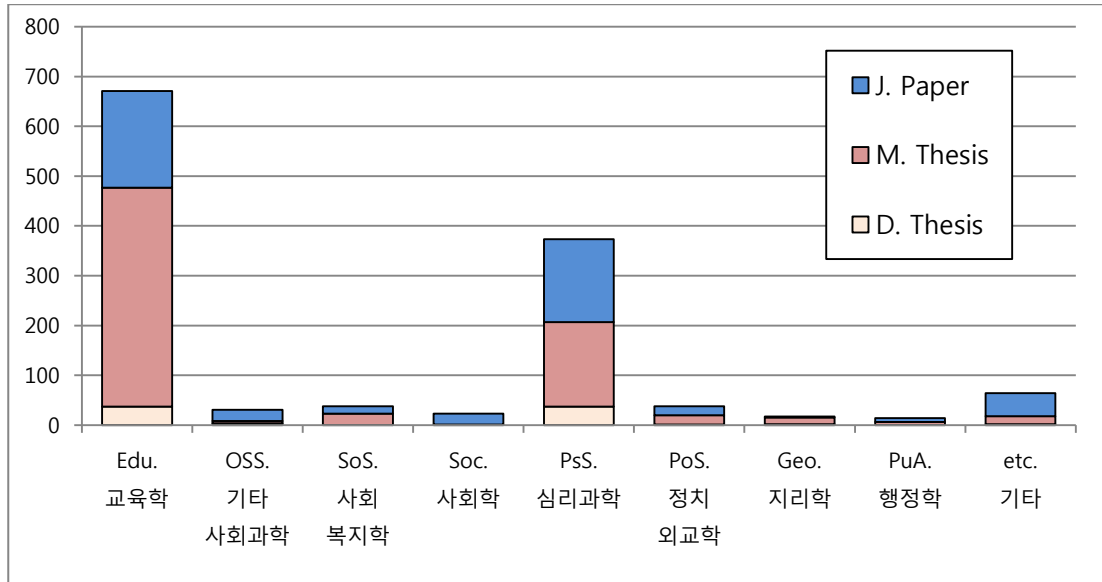


Fig. 4. The number of *Gigong* related studies by Middle Subject Categories in Social Science.

③ 자연과학(Nat. : Natural Sciences) 분야 중분류 결과

자연과학 분야 중분류 결과 기타자연과학 분야가 19건(45.2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생  
 활과학(9건), 통계학(8건), 생명과학(6건)순으로 나타났다(Table 12, Fig. 5).

Table 24. The Number of *Gigong* Related Studies by Middle Subject Categories in Natural Science.

Natural Sciences(Nat. : 자연과학)							
Studies	ONS.	Bio.	LiS.	NSG.	Geo.	Sta.	Total
D.T.	1	0	1	0	0	0	2
M.T.	0	1	2	0	0	0	3
J.P.	18	5	6	1	1	6	37
Total	19	6	9	1	1	6	42
	45.24%	14.29%	21.43%	2.38%	2.38%	14.29%	100%

ONS. : Other Natural Science(기타자연과학)      Bio. : Biology(생물학)  
 LiS. : Life Sciences(생활과학)                      NSG. : Natural Science General(자연과학일반)  
 Geo. : Geology(지질학)                                      Sta. : Statistics(통계학)  
 D.T. : Doctoral Thesis, M.T. : Master's Thesis, J.P. : Journal Pap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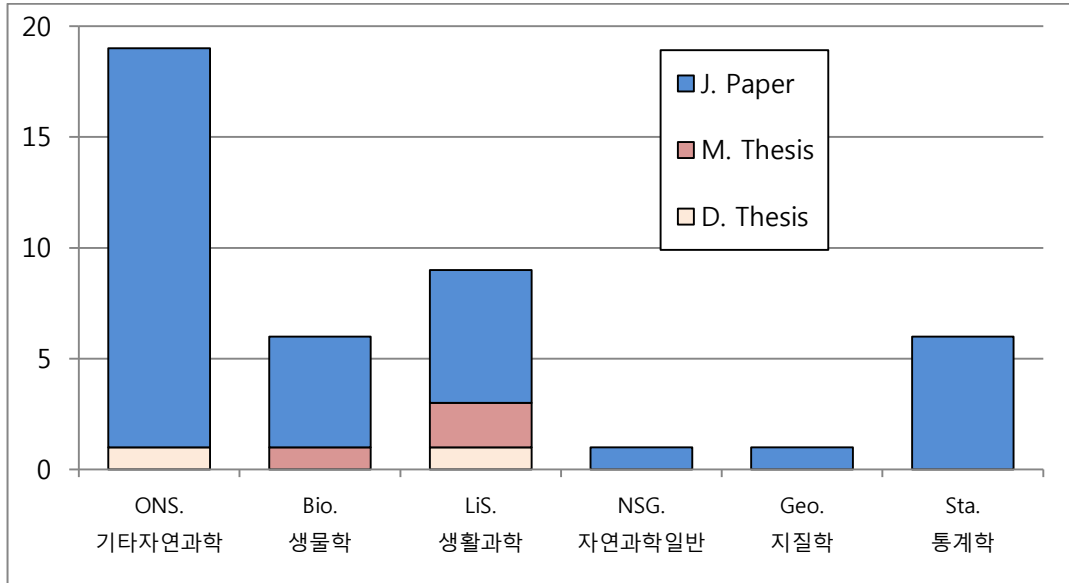


Fig. 5. The number of *Gigong* related studies by Middle Subject Categories in Natural Sci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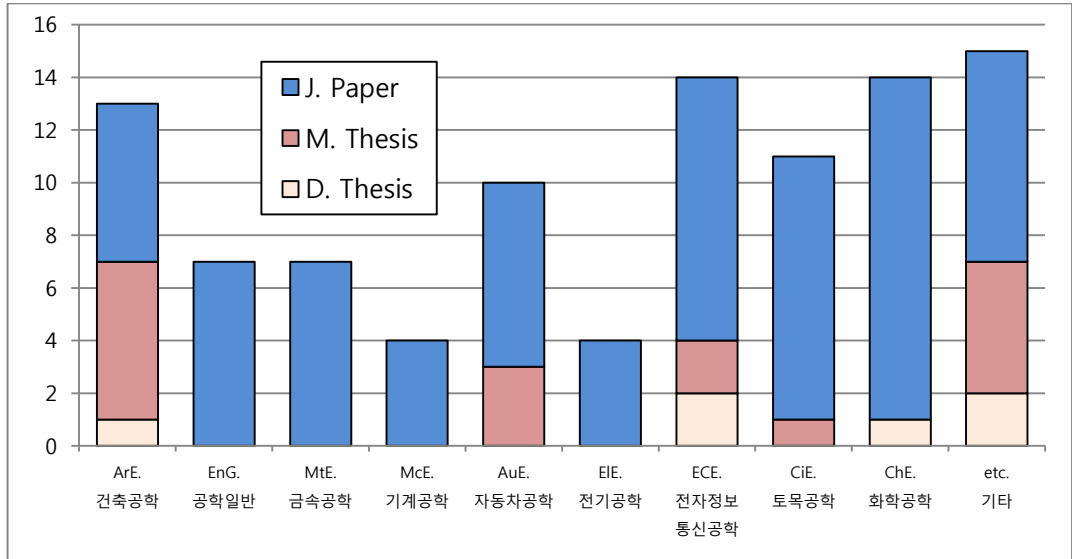
④ 공학(Eng. : Engineering) 분야 중분류 결과

공학 분야 중분류 결과 전자정보통신분야와 화학공학분야 동일하게 14건(14.1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건축공학(13건), 토목공학(11건)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3, Fig. 6).

Table 25. The Number of *Gigong* Related Studies by Middle Subject Categories in Engineering.

Engineering(Eng. :공학)											
Studies	ArE.	EnG.	MtE.	McE.	AuE.	EIE.	ECE.	CIe.	ChE.	etc.	Total
D.T.	1	0	0	0	0	0	2	0	1	2	6
M.T.	6	0	0	0	3	0	2	1	0	5	17
J.P.	6	7	7	4	7	4	10	10	13	8	76
Total	13	7	7	4	10	4	14	11	14	15	99
	13.13%	7.07%	7.07%	4.04%	10.10%	4.04%	14.14%	11.11%	14.14%	15.15%	100%

ArE. : Architectural Engineering(건축공학)      EnG. : Engineering in general(공학일반)  
 MtE. : Metallurgical Engineering(금속공학)      McE. : Mechanical Engineering(기계공학)  
 AuE. : Automotive Engineering(자동차공학)      EIE. : Electrical engineering(전기공학)  
 ECE. : Electronics/Communications Engineering(전자정보통신공학)      CiE. : Civil Engineering(토목공학)  
 ChE. : Chemical Engineering(화학공학)  
 D.T. : Doctoral Thesis, M.T. : Master's Thesis, J.P. : Journal Paper



**Fig. 6. The number of *Gigong* related studies by Middle Subject Categories in Engineer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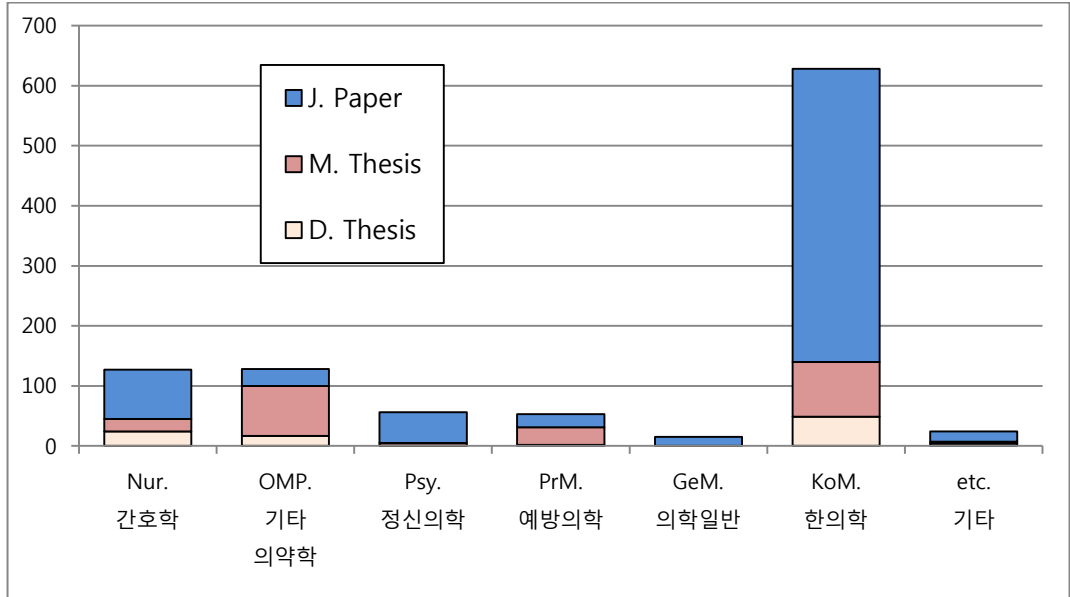
⑤ 의약학(Med. : Medicine and Pharmacy) 분야 중분류 결과

의약학 분야 중분류 결과 한의학 분야가 628건(60.91%)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기타의약학(128건), 간호학(127건)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4, Fig. 7).

**Table 26. The Number of *Gigong* Related Studies by Middle Subject Categories in Medicine & Pharmacy.**

Medicine and Pharmacy(Med. : 의약학)								
Studies	Nur.	OMP.	Psy.	PrM.	GeM.	KoM.	etc.	Total
D.T.	24	17	1	2		49	4	97
M.T.	21	83	4	29		91	3	231
J.P.	82	28	51	22	15	488	17	703
Total	127	128	56	53	15	<b>628</b>	24	1,031
	12.32%	12.42%	5.43%	5.14%	1.45%	<b>60.91%</b>	2.33%	100%

Nur. : Nursing Science(간호학)                      OMP. : Other Medicine and Pharmacy(기타의약학)  
 Psy. : Psychiatry(정신의학)                      PrM. : Preventive Medicine(예방의학)  
 GeM. : General Medicine(의학일반)              KoM. : Korean Medicine(한의학)  
 D.T. : Doctoral Thesis, M.T. : Master's Thesis, J.P. : Journal Paper



**Fig. 7. The number of *Gigong* related studies by Middle Subject Categories in Medicine & Pharma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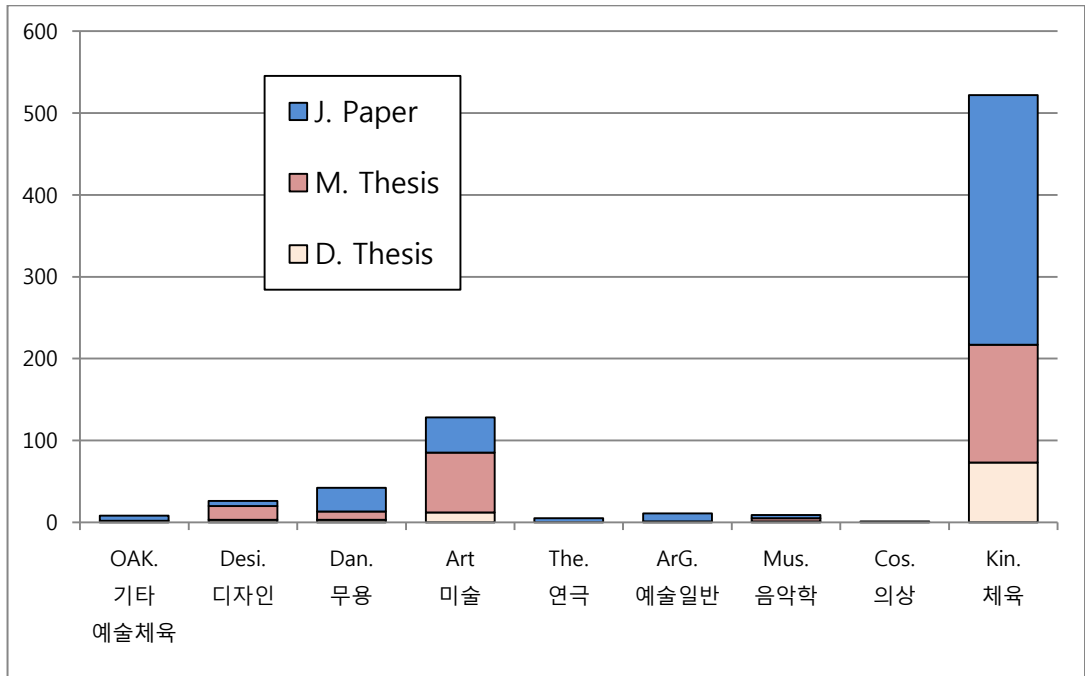
⑥ 예술체육 (Arts. : Arts and Kinesiology) 분야 중분류 결과

예술체육 분야 중분류 결과 체육 분야가 522건(69.41%)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미술(128건), 무용(42건)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5, Fig. 8).

**Table 27. The Number of *Gigong* Related Studies by Middle Subject Categories in Arts & Kinesiology.**

Arts and Kinesiology (Arts. : 예술체육)										
Studies	OAK.	Desi.	Dan.	Art	The.	ArG.	Mus.	Cos.	Kin.	Total
D.T.		3	3	12			1		73	92
M.T.	2	17	10	73		1	4	1	144	252
J.P.	6	6	29	43	5	10	4		305	408
Total	8	26	42	128	5	11	9	1	522	752
	1.06%	3.46%	5.59%	17.02%	0.66%	1.46%	1.20%	0.13%	69.41%	100%

OAK. : Other Arts and Kinesiology(기타예술체육)    Desi. : Design(디자인)  
 Dan. : Dance(무용)    Art : Art(미술)  
 The. : Theater(연극)    ArG. : Arts in general(예술일반)  
 Mus. : Musicology(음악학)    Cos. : Costumes(의상)  
 Kin. : Kinesiology(체육)  
 D.T. : Doctoral Thesis, M.T. : Master's Thesis, J.P. : Journal Paper



**Fig. 8. The number of *Gigong* related studies by Middle Subject Categories in Arts & Kinesiology.**

⑦ 농수해양(Agri. : Marine Agriculture, Fishery) 분야 중분류 결과

농수해양 분야 중분류 결과 식품과학 분야가 4건(40.00%)으로 가장 많았다(Table 16, Fig. 9).

⑧ 복합학(Int. : Interdisciplinary Studies) 분야 중분류 결과

복합학 분야 중분류 결과 학제간연구 분야가 310건(88.07%)으로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뇌과학 분야가 18건(5.11%)로 나타났다(Table 16, Fig. 9).

**Table 28. The Number of *Gigong* Related Studies by Middle Subject Categories in Marine Agriculture, Fishery and Interdisciplinary Studies.**

Marine Agriculture, Fishery (Agri.;농수해양)						Interdisciplinary Studies(Int.;복합학)					
Studies	Agr.	FoS.	For.	LaA.	Total	AfS.	S&T.	BrS.	InR.	etc.	Total
D.T.	0	1	0	1	2	1	0	2	0	2	5
M.T.	0	1	0	0	1	0	0	4	1	0	5
J.P.	2	2	2	1	7	6	7	12	308	8	341
Total	2	4	2	2	10	7	7	18	309	10	351
	20.00%	40.00%	20.00%	20.00%	100%	1.99%	1.99%	5.13%	88.03%	2.85%	100%

**Agri.** : Agriculture(농학)

**FoS.** : Food Science(식품과학)

**For.** : Forestry(임학)

**LaA.** : Landscape Architecture(조경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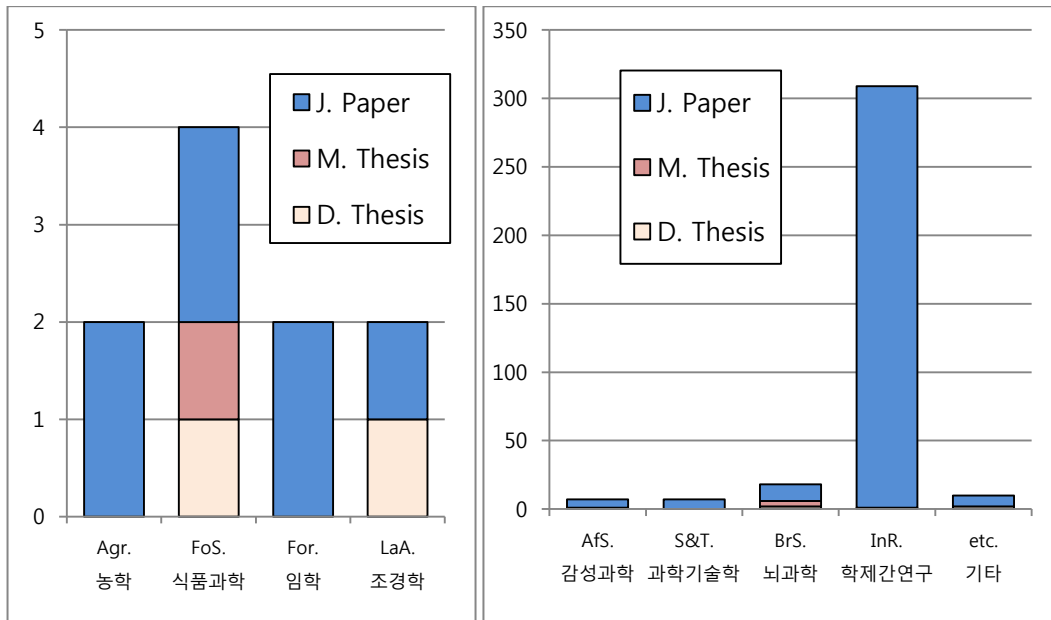
**D.T.** : Doctoral Thesis, **M.T.** : Master's Thesis, **J.P.** : Journal Paper

**AfS.** : Affective Science(감성과학)

**S&T.** :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과학기술학)

**BrS.** : Brain Science(뇌과학)

**InR.** : Interdisciplinary Research(학제간연구)



**Fig. 9. The number of *Gigong* related studies by Middle Subject Categories in Marine Agriculture, Fishery and Interdisciplinary Stud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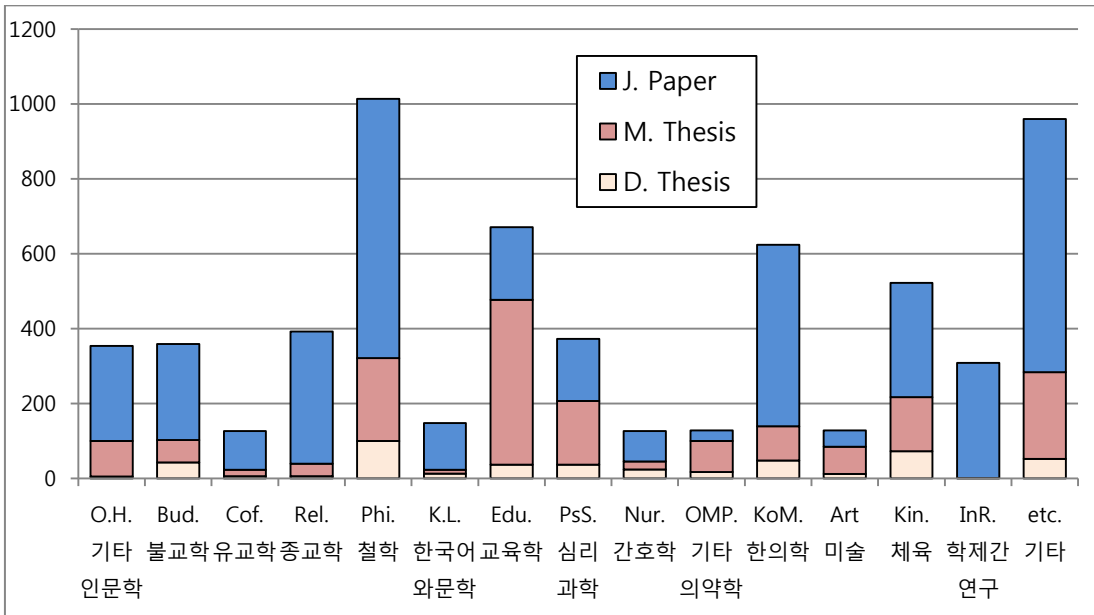
(3) 연구 주제별 중분류 중 다수 분야 결과

연구 주제별 중분류 전체 분야 중 가장 많은 건수는 철학분야(1,014건;16.25%)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육학(671;10.75%), 한의학(628;10.06%), 체육(522;8.37%)으로 나타났다(Table 17, Fig 10).

**Table 17. The Number of *Gigong* Related Studies by Total Middle Subject Categories Analysis.**

Total Middle Subject Category Analysis																
Studies	O.H.	Bud.	Cof.	Rel.	Phi.	K.L.	Edu.	Psy.	Nur.	OMP.	KoM.	Art	Kin.	InR.	etc.	Total
D.T.	5	43	6	6	100	13	37	37	24	17	49	12	73		52	474
M.T.	95	60	17	33	221	10	440	170	21	83	91	73	144	1	232	1,691
J.P.	254	256	104	353	693	125	194	166	82	28	488	43	305	308	676	4,075
Total	354	359	127	392	1,014	148	671	373	127	128	628	128	522	309	960	6,240
	5.67%	5.75%	2.04%	6.28%	16.25%	2.37%	10.75%	5.98%	2.04%	2.05%	10.06%	2.05%	8.37%	4.95%	15.38%	100%

O.H. : Misc. Humanities(기타인문학)      Bud. : Buddhism(불교학)  
 Cof. : Confucianism(유교학)      Rel. : Religion(종교학)  
 Phi. : Philosophy(철학)      K.L. : Korean/Korean Literature(한국어와문학)  
 Edu. : Education(교육학)      PsS. : Psychological Science(심리과학)  
 Nur. : Nursing Science(간호학)      OMP. : Other Medicine and Pharmacy(기타의약학)  
 KoM. : Korean Medicine(한의학)      Art : Art(미술)  
 Kin. : Kinesiology(체육)      InR. : Interdisciplinary Research(학제간연구)  
 D.T. : Doctoral Thesis, M.T. : Master's Thesis, J.P. : Journal Paper



**Fig. 10. The number of *Gigong* related studies by total Middle Subject Categories analysis.**

### 3) 기공 분야별 분류 결과

기공 분야별 분류작업 과정 중 여러 분야에 중복된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기에 중복을 누적시킨







#### 4) 연구 방법별 분류 결과

##### (1) 연구 방법별 단순 분류 결과

연구 방법별 단순 분류 결과 분석연구가 4,199건(67.33%)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기술연구(1,146:18.37%), 질적연구(562:9.01%), 실험연구(332:5.32%)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0, Fig. 13).

**Table 20. The Number of *Gigong* Related Studies by Research Method.**

Studies	D.R.	A.R.	E.R.	Q.R.	Total
D.T.	93	298	36	47	474
M.T.	608	838	81	164	1,691
J.P.	445	3,064	215	351	4,075
Total	1,146 18.37%	4,200 67.31%	332 5.32%	562 9.01%	6,24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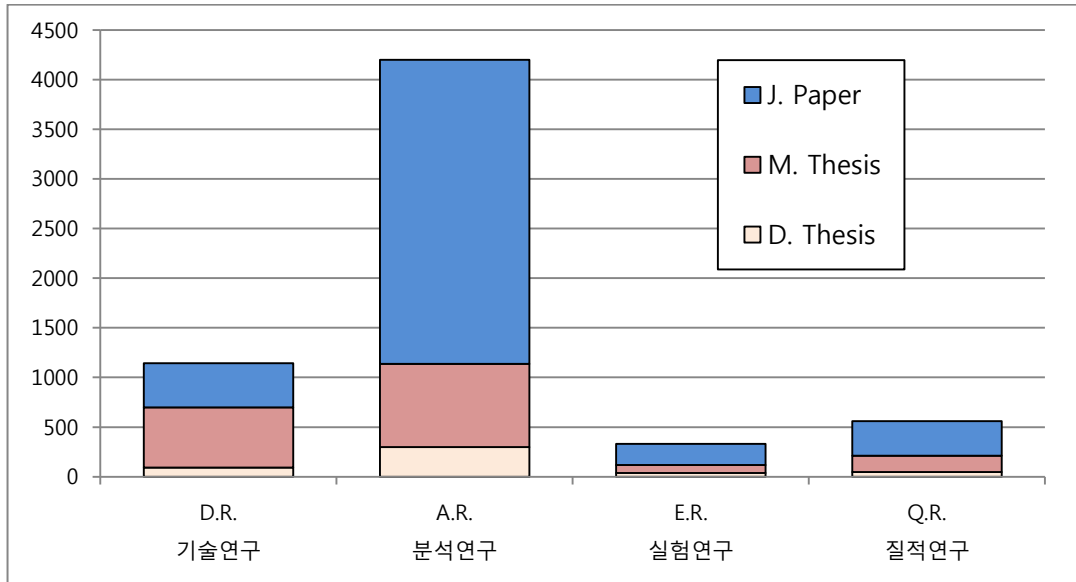
D.R. : Descriptive Research(기술연구)

A.R. : Analysis Research(분석연구)

E.R. : Experimental Research(실험연구)

Q.R. : Qualitative Research(질적연구)

D.T. : Doctoral Thesis, M.T. : Master's Thesis, J.P. : Journal Paper



**Fig. 13. The number of *Gigong* related studies by Research Method.**

##### (2) 연구 주제와 기공 항목에 따른 연구방법 분류 결과

연구주제에 따른 연구방법 분류 결과 대다수 분야에서 분석연구가 다수를 차지했지만 특히 인문

학 분야에서 91.70%(2,463건)로 압도적이었으나, 사회과학 분야는 기술연구가 44.92%(570건)로 분석연구 38.77%(492건)보다 많게 나타났다(Table 21, Fig.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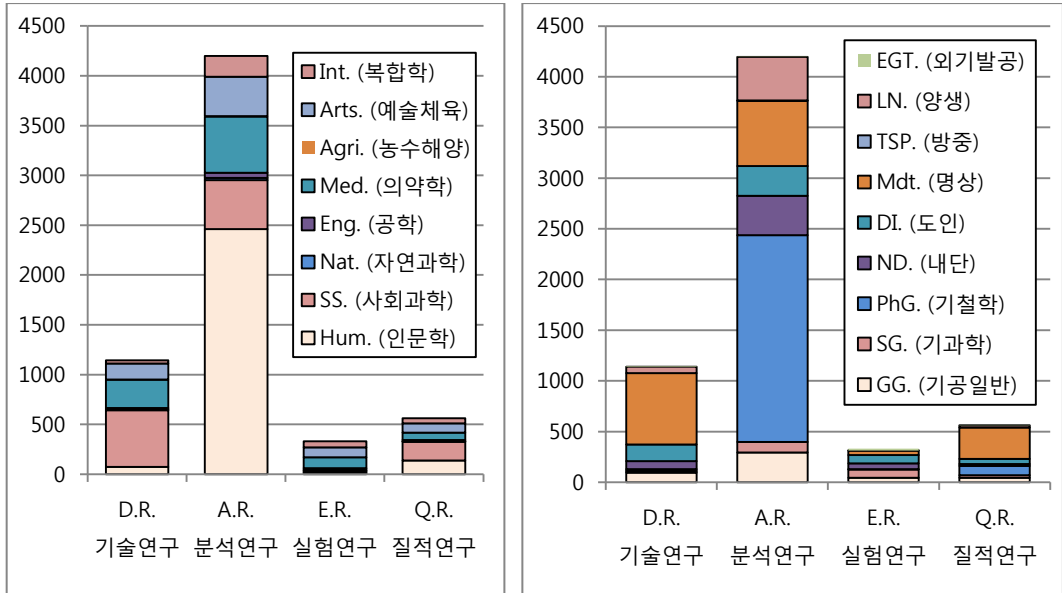
또한, 기공분야에 따른 연구방법 분류 결과 역시 대부분 분석연구가 다수를 차지하였는데, 특히 기철학 분야에서는 분석연구가 94.88%(2,038건)으로 압도적인 반면, 명상 분야는 기술연구가 41.59%(707건)로 분석연구(37.76%;642건)보다 더 많게 나타났고, 외기발공 분야에서는 실험연구가 63.33%(19건)으로 분석연구(16.67%;5건)보다 많게 나타났다(Table 21, Fig. 14).

**Table 21. The Number of *Gigong* Related Studies by Research Method of Main Subject Categories & *Gigong* Categories.**

Research Method of Main Subject Categories						Research Method of <i>Gigong</i> Categories					
Cat.	D.R.	A.R.	E.R.	Q.R.	Total	Cat.	D.R.	A.R.	E.R.	Q.R.	Total
Hum.	72	<b>2,463</b>	14	137	2,686	GG.	96	295	45	43	478
SS.	<b>570</b>	492	18	189	1,269	SG.	16	104	82	27	229
Nat.	11	20	8	3	42	PhG.	16	<b>2,038</b>	3	91	2,148
Eng.	12	51	21	15	99	ND.	79	388	56	20	543
Med.	285	563	<b>108</b>	75	1,031	DI.	164	295	81	51	591
Agri.	2	8			10	Mdt.	<b>707</b>	642	44	307	1,700
Arts.	163	395	100	94	752	TSP.		5			5
Int.	31	208	63	49	351	LN.	63	428	2	22	515
						EGT.	5	5	<b>19</b>	1	30
Total	1,146	4,200	332	562	6,240	Total	1,146	4,200	332	562	6,240
	18.37%	67.31%	5.32%	9.01%	100%		18.37%	67.31%	5.32%	9.01%	100.0%

<b>Hum.</b> : Humanities(인문학)	<b>GG.</b> : General Gigong(기공일반)
<b>SS.</b> : Social Science(사회과학)	<b>SG.</b> : Science of Gi(기과학)
<b>Nat.</b> : Natural Sciences(자연과학)	<b>PhG.</b> : Philosophy of Gi(기철학)
<b>Eng.</b> : Engineering(공학)	<b>ND.</b> : Nae-Dan(내단)
<b>Med.</b> : Medicine and Pharmacy (의약학)	<b>DI.</b> : Do-In(도인)
<b>Agri.</b> : Marine Agriculture, Fishery (농수해양)	<b>Mdt.</b> : Meditation(명상)
<b>Arts.</b> : Arts and Kinesiology (예술체육)	<b>TSP.</b> : Taoist Sexual Practices(방중)
<b>Int.</b> : Interdisciplinary Studies (복합학)	<b>LN.</b> : Life Nurturing(양생)
	<b>EGT.</b> : External Gigong Therapy(외기발공)
<b>D.R.</b> : Descriptive Research(기술연구)	<b>A.R.</b> : Analysis Research(분석연구)
<b>E.R.</b> : Experimental Research(실험연구)	<b>Q.R.</b> : Qualitative Research(질적연구)



**Fig. 14. The number of *Gigong* related studies by Research Method of Main Subject Categories & *Gigong* Categories.**

**5) 기공 분야 중 기철학, 명상 분야를 제외한 분류 결과**

기공학의 특이성이 좀 더 강조되고 분명하게 하기 위해 기공을 광의적으로 해석함에 따라 포함된 기철학, 명상분야를 제외시켜 분석하였고, 그 결과 아래와 같이 나타났다.

**(1) 연도별 분류 결과**

기철학, 명상분야를 제외시키고 발행연도별로 분류한 결과 2007년이 15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006년(141건), 2001년(137건)의 순이며, 2000년대 초반에서 2007년까지가 대체적으로 많은 발행 건수를 보였다(Table 22, Fig 15).

**Table 22. The Number of *Gigong* Related Studies by *Gigong* Categories Excluding Philosophy Of Gi and Meditation.**

Studies	1950	1951	1952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GG.															
SG.															
ND.															
DI.															
TSP.															
LN.															
EGT.													1		
Total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Studies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GG.										1				1	
SG.									1						
ND.									1						2
DI.						1		1	1			1	1	2	1
TSP.															
LN.					1		1	1	3	1	1	2	2	4	
EGT.															
Total	0	0	0	0	1	1	1	2	6	2	1	3	3	7	3

Studies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GG.					2		2	5	1	2
SG.	1		1		1		1		1	
ND.		2	3		2		4	3	1	1
DI.		1	1		1	2	3		1	4
TSP.						1			1	
LN.		2	2		1	4	3	2	2	2
EGT.										1
Total	1	5	7	0	7	7	13	10	7	10

Studies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GG.	3	2	3	6	6	7	17	18	21	29
SG.	1	2	2		4	9	7	12	12	17
ND.	4		4	8	4	7	14	8	19	27
DI.	2		2	3	4	8	13	13	25	12
TSP.										
LN.	3	4	4	2	15	7	11	10	16	13
EGT.					3				3	2
Total	13	8	15	19	36	38	62	61	96	100

Studies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GG.	21	43	26	34	28	17	14	15	26	17
SG.	20	7	6	7	17	14	13	9	7	9
ND.	17	33	15	39	33	31	36	45	27	15
DI.	30	26	25	31	29	37	53	48	19	17
TSP.										
LN.	21	26	20	18	25	21	22	33	23	26
EGT.	1	2		6	2		3		1	
Total	110	137	92	135	134	120	141	150	103	84

Studies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Total
GG.	21	20	17	16	19	5	13	478 (19.93%)
SG.	11	8	8	6	4	2	9	229 (9.55%)
ND.	17	15	25	24	25	19	15	545 (22.73%)
DI.	22	27	20	24	25	17	39	<b>592 (24.69%)</b>
TSP.		1	1		2			6 (0.25%)
LN.	34	16	20	27	20	24	22	518 (21.60%)
EGT.	2		1		3			30 (1.25%)
Total	107	87	92	97	98	67	98	2,398 (100%)

GG. : General Gigong(기공일반)

ND. : Nae-Dan(내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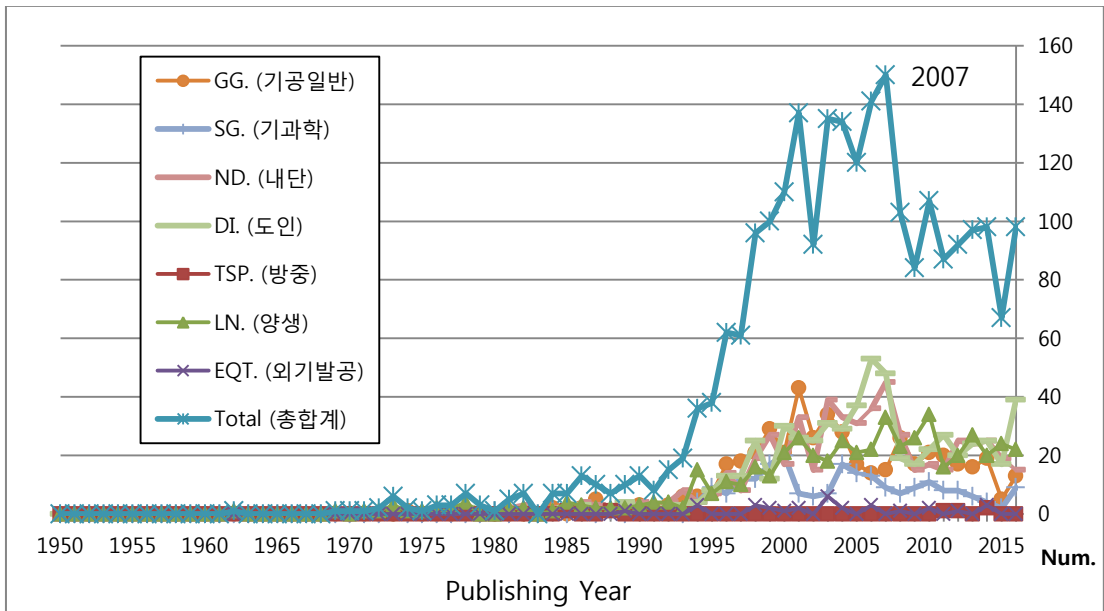
TSP. : Taoist Sexual Practices(방중)

EGT. : External Gigong Therapy(외기발공)

SG. : Science of Gi(기과학)

DI. : Do-In(도인)

LN. : Life Nurturing(양생)



**Fig. 15. The number of *Gigong* related studies by *Gigong* Categories excluding Philosophy Of Gi and Meditation.**

(2) 연구 주제별 분류 결과

기철학, 명상 분야를 제외시키고 연구 주제별 분류한 결과 의약학 분야가 708건(29.5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인문학 분야(647건;26.98%), 예술체육 분야(503건;20.98%)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3, Fig. 16).





### (3) 연구 방법별 분류 결과

기철학, 명상 분야를 제외시키고 연구 방법별로 분류한 결과 대부분의 기공 분야에서 분석연구 방법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특히 양생 분야에서는 분석연구 방법이 압도적으로 많이(432건;83.40%)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기발공 분야에서는 실험연구 방법(19건;63.33%)이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4, Fig 17).

**Table 24. The Number of *Gigong* Related Studies by Research Method Excluding Philosophy Of Gi and Meditation.**

Studies	GG.	SG.	ND.	DI.	TSP.	LN.	EGT.	Total
D.R.	95	16	79	165		62	5	422
A.R.	295	104	389	296	6	<b>432</b>	5	1,527
E.R.	45	82	56	81		2	<b>19</b>	285
Q.R.	43	27	21	50		22	1	164
Total	478	229	545	592	6	518	30	2,398
	19.93%	9.55%	22.73%	24.69%	0.25%	21.60%	1.25%	100%

GG. : General Gigong(기공일반)

ND. : Nae-Dan(내단)

TSP. : Taoist Sexual Practices(방중)

EGT. : External Gigong Therapy(외기발공)

D.R. : Descriptive Research(기술연구)

E.R. : Experimental Research(실험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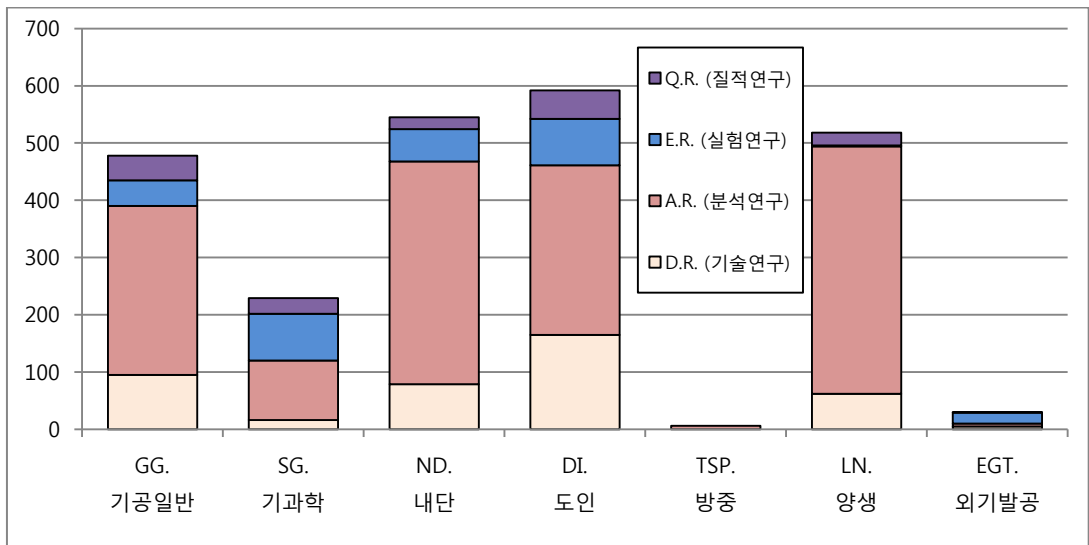
SG. : Science of Gi(기과학)

DI. : Do-In(도인)

LN. : Life Nurturing(양생)

A.R. : Analysis Research(분석연구)

Q.R. : Qualitative Research(질적연구)



**Fig. 17. The number of *Gigong* related studies by Research Method excluding Philosophy Of Gi and Meditation.**

## 6) 연구자 분석 결과

### (1) 주저자 분석 결과

선정된 논문의 주저자를 분석해 본 결과 10편 이상 연구논문을 발표한 연구자는 총 34명이었고, 이 중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한 주저자는 김낙필로 30건이다. 다음으로 정우진 25, 이진수 24, 정경희 21, 김정호 19, 방건웅, 정우열 18, 석봉래 16, 이명수 15, 김경철 14 등으로 나타났다. 김낙필은 기공 분야 중 기철학, 내단 분야가 주를 이루었고, 정우진은 기공 분야 중 주로 양생, 기철학, 내단, 명상, 방중 등 기공학 관련 대부분의 영역에서 연구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진수, 김경철 역시 기공학 관련 여러 분야에 걸쳐 연구 발표했으며, 정경희는 주로 기철학과 내단 분야, 방건웅은 기과학 분야, 정우열은 기철학 분야, 김정호와 석봉래는 명상 분야, 이명수는 기공일반 분야에 주로 연구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5).

**Table 25. List of Author Who Published More than 10 *Gi-Gong* related Studies.**

No.	Author	Middle Subject Category	GG.	SG.	PhG.	ND.	DI.	Mdt.	TSP.	LN.	EGT.	Total	
1	김낙필	Edu.교육학			1							1	
		O.H.기타인문학			2					1			3
		SSG.사회과학일반			1								1
		His.역사학			1								1
		Rel.종교학			5	12			1				18
		Phi.철학			2	3				1		6	
2	정우진	O.H.기타인문학			2								2
		GeM.의학일반			1								1
		Rel.종교학					3			1	4		8
		Phi.철학	1			2			2	1	8	14	
3	이진수	O.H.기타인문학									3		3
		Dan.무용				1							1
		Lit.문학							1				1
		His.역사학							1				1
		Rel.종교학				2	4				4		10
		Phi.철학			1								1
		Kin.체육						4			2		6
KoM.한의학									1		1		
4	정경희	S&T.과학기술학			1								1
		Dan.무용							1				1
		His.역사학			1	5							6
		Rel.종교학				4							4
		Phi.철학			3	6						9	
5	김정호	O.H.기타인문학			1			1				2	
		PsS.심리과학							9				9

	CogS.인지과학				3		3
	EIE.전기공학	1					1
	Psy.정신의학				1		1
	PoS.정치외교학		2				2
	Rel.종교학				1		1
	MtE.금속공학	<b>6</b>	1				7
	O.H.기타인문학	1					1
6	방건웅 ONS.기타자연과학	1					1 18
	Bio.생물학	1					1
	InR.학제간연구	2	4	2			8
	Bio.생물학			1			1
	EIE.전기공학	1					1
7	정우열 Rel.종교학			1			1 18
	InR.학제간연구			1			1
	KoM.한의학			4		<b>10</b>	14
8	석봉래 Bud.불교학					<b>16</b>	16 16
	Cof.유교학			3			3
	Phi.철학			2			2
9	이명수 Kin.체육	2					2 15
	InR.학제간연구	8					8
10	김경철 OMP.기타의약학		1				1 14
	KoM.한의학	2	3	1	4	3	13
	Edu.교육학				1		1
11	심준영 OSS.기타사회과학				1		1 13
	Phi.철학	1					1
	Kin.체육	3		<b>6</b>	1		10
	Edu.교육학					2	2
12	장현갑 O.H.기타인문학					2	2 13
	Bud.불교학					3	3
	PsS.심리과학					<b>6</b>	6
13	김시천 Rel.종교학		2			1	3 12
	Phi.철학		<b>6</b>	1		2	9
	OSS.기타사회과학		1				1
	O.H.기타인문학		2				2
14	이상익 Cof.유교학		1				1 12
	Phi.철학		<b>5</b>				5
	K.L.한국어와문학		2	1			3
	O.H.기타인문학		1			2	3
15	이석명 Rel.종교학	1					1 12
	C.L.중국어와문학		1			1	2
	Phi.철학		<b>5</b>			1	6
	O.H.기타인문학			1			1
16	이승호 BrS.뇌과학					5	5 12
	PsS.심리과학	1					1

	Rel.종교학	1					1	
	Phi.철학	1		2	1		4	
	O.H.기타인문학		1				1	
	Art미술	1					1	
17	조민환			1			1	12
	Rel.종교학			1			1	
	Phi.철학	1		4			5	
	K.L.한국어와문학	1		2			3	
	Edu.교육학					1	1	
	Desi.디자인		1				1	
	Art미술		2				2	
18	김경희			2	1	1	4	11
	PoS.정치외교학						1	
	Rel.종교학		1				1	
	Phi.철학		1				1	
	KoM.한의학	1					1	
	OMP.기타의약학				1	1	2	
19	김지선				6	2	8	11
	Kin.체육						1	
	InR.학제간연구				1		1	
	Edu.교육학					1	1	
	O.H.기타인문학			1			1	
20	손병욱		1				1	11
	Lit.문학						2	
	Bud.불교학					2	1	
	Cof.유교학		1				1	
	Phi.철학		3	1	1		5	
21	정중호	InR.학제간연구	2	7	2		11	11
	Phi.철학		1				1	
22	조효남	CiE.토목공학		4	4		8	11
	InR.학제간연구		2				2	
	OMP.기타의약학					1	1	
23	허일웅	Rel.종교학	1		2		3	11
	Kin.체육	4		1	2		7	
24	김경환	KoM.한의학	8		2		1	10
	SSG.사회과학일반				1		1	
	Rel.종교학			4			4	
25	김성환	C.L.중국어와문학				1	1	10
	Phi.철학	1	2			1	4	
	Edu.교육학					3	3	
	InfS.문헌정보학		1				1	
26	김용수	Rel.종교학		2			2	10
	Phi.철학		1			1	2	
	Kin.체육		1		1		2	
	Lit.문학		1				1	
27	김현수	Rel.종교학		1		1	2	10
	Phi.철학	1	4				5	

	InR. 학제간연구	1	1		2	
	Bud. 불교학		1		1	2
28	박병수	Rel. 종교학	1	3	3	7 10
	Phi. 철학	1				1
29	양은용	Rel. 종교학		2	4	4 1 10
	O.H. 기타인문학		1			1 2
	ArS. 지역학				1	1
30	이재봉	Phi. 철학		2	3	1 6 10
	KoM. 한의학				1	1
	Rel. 종교학			2		2 4
31	이진용	C.L. 중국어와문학		1		1 2 10
	Phi. 철학		2	1		1 4
	O.H. 기타인문학				1	1
	Rel. 종교학		1	2		3
32	임채우	Phi. 철학	1	2	2	5 10
	K.L. 한국어와문학		1			1
	Edu. 교육학				1	1
	OAK. 기타예술체육		1			1
	Soc. 사회학		2			2
33	장윤수	Cof. 유교학		1		1 10
	Rel. 종교학		1			1
	Phi. 철학		4			4
34	주재백	ChE. 화학공학	10			10 10

GG. : General Gigong(기공일반)

PhG. : Philosophy of Gi(기철학)

DI. : Do-In(도인)

TSP. : Taoist Sexual Practices(방중)

EGT. : External Gigong Therapy(외기발공)

SG. : Science of Gi(기과학)

ND. : Nae-Dan(내단)

Mdt. : Meditation(명상)

LN. : Life Nurturing(양생)

ArS. : Area Studies(지역학)

Art : Art(미술)

Bio. : Biology(생물학)

BrS. : Brain Science(뇌과학)

Bud. : Buddhism(불교학)

C.L. : Chinese/Chinese Literature(중국어와문학)

ChE. : Chemical Engineering(화학공학)

CiE. : Civil Engineering(토목공학)

Cof. : Confucianism(유교학)

CogS. : Cognitive Science(인지과학)

Dan. : Dance(무용)

Desi. : Design(디자인)

Edu. : Education(교육학)

EIE. : Electrical engineering(전기공학)

GeM. : General Medicine(의학일반)

His. : History(역사학)

InfS. : Information Science(문헌정보학)

InR. : Interdisciplinary Research(학제간연구)

K.L. : Korean/Korean Literature(한국어와문학)

Kin. : Kinesiology(체육)

KoM. : Korean Medicine(한의학)

Lit. : Literature(문학)

OAK. : Other Arts and Kinesiology(기타예술체육)

O.H. : Misc. Humanities(기타인문학)

OMP. : Other Medicine and Pharmacy(기타의약학)

ONS. : Other natural science(기타자연과학)

OSS. : Other Social Science(기타사회과학)

Phi. : Philosophy(철학)

PoS. : Political Science(정치외교학)

PsS. : Psychological Science(심리과학)

Psy. : Psychiatry(정신의학)

Rel. : Religion(종교학)

S&T. :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과학기술학)

Soc. : Sociology(사회학)

SSG. : Social Science in general(사회과학일반)

(2) 공동 저자 또는 지도 교수 분석 결과

선정된 논문의 공동 저자 또는 지도 교수를 분석해 본 결과 14편 이상 연구 논문에 공동 연구자로 참여하거나 학위논문을 지도한 연구자는 총 23명이었고, 이 중 가장 많은 논문에 참여하거나 지도한 연구자는 김병채로 총 84건이었고, 이어 김낙필이 82건, 허일웅 36건, 이기남 32건, 양은용 29건, 김미리혜 25건, 김정호 24건, 윤종화 24건, 이상남 22건, 정광조 22건, 권영규 18건, 김경철 18건 등이다. 김병채, 김낙필, 허일웅, 양은용, 김미리혜, 김정호, 정광조, 김경철 등은 학위논문의 지도교수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기남, 윤종화, 이상남, 권영규는 주로 공동 연구자인 경우로 나타났다(Table 26).

또한 김병채, 김미리혜, 김정호는 기공학 분야 중 명상 분야의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김낙필, 양은용, 정광조는 기공학관련 대부분 분야에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허일웅, 김경철은 도인 분야에, 이기남은 양생분야에, 윤종화, 이상남, 권영규는 기공일반 분야에 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Table 26).

**Table 26. List of Co-Author or Thesis Director Who Published More than 14 *Gi-Gong* related Studies.**

No.	Co-Author /Thesis Director	Studies	Middle Subject Categories	GG.	SG.	PhG.	ND.	DI.	Mdt.	TSP.	LN.	EGT.	Total		
1	김병채	D.T.	Edu.교육학						4				4		
			PsS. 심리과학						1				1	84	
		M.T.	Edu.교육학	1		1			73				75		
	PsS.심리과학						4				4				
2	김낙필	D.T.	Bud.불교학	1		2	8	1		1	1		14		
			OMP.기타의약학	1									1		
		M.T.	O.H.기타인문학	3	1	12	10	7	2			12		47	82
			Bud.불교학				1	1						2	
3	허일웅		Phi.철학	4	2	3	2	3	3		1		18		
		D.T.	Kin.체육	1			1	4			2		8		
		M.T.	Kin.체육	9				2	13			2	1	27	36
J.P.	Kin.체육								1			1			
4	이기남	D.T.	KoM.한의학								2		2		
		M.T.	KoM.한의학					1				16		17	32
		J.P.	KoM.한의학	5	1							2	5	13	
5	양은용	D.T.	O.H.기타인문학							1			1		
			Bud.불교학				1	2						3	
			O.H.기타인문학	3			3	1	1	8		5		21	
			Bud.불교학									1		1	29
		M.T.	Cof.유교학					1						1	
	Phi.철학					1			1			2			

6	김미리혜	M.T.	PsS.심리과학					20		20		
			FaM.가정의학					1		1		
		J.P.	PsS.심리과학					2		2	25	
			CogS.인지과학					1		1		
7	김정호		Psy.정신의학					1		1		
		M.T.	PsS.심리과학					17		17		
		J.P.	FaM.가정의학					1		1	24	
8	윤종화		PsS.심리과학					6		6		
		D.T.	KoM.한의학					1		1		
		M.T.	KoM.한의학	1				1		2	24	
9	이상남	J.P.	KoM.한의학	12		1	5		1	2	21	
		D.T.	KoM.한의학					1		1	2	
		M.T.	KoM.한의학	1				1		1	3	
10	정광조	J.P.	KoM.한의학	11				1	2	3	17	
		D.T.	OMP.기타의약학					1			1	
			OMP.기타의약학	2	2		1	4	6		1	16
		M.T.	PrM.예방의학	1			1				2	22
			Kin.체육							1		1
11	권영규	J.P.	Edu.교육학					1		1		
			InR.학제간연구					1			1	
		D.T.	KoM.한의학	1							1	
		M.T.	KoM.한의학	3	1			1		2	7	
12	김경철	J.P.	KoM.한의학	7				1		2	10	
		M.T.	KoM.한의학					1			1	
			PrM.예방의학					1			1	
		J.P.	Sta.통계학					1			1	18
			InR.학제간연구					1			1	
13	윤사순		KoM.한의학	2	1			10	1		14	
		D.T.	Phi.철학					2			2	
		M.T.	Edu.교육학					8			8	
14	정경희	M.T.	Phi.철학					7			7	
			O.H.기타인문학					1			1	
		D.T.	Phi.철학					1	1		2	
			Kin.체육	1				2			3	
			PoS.정치외교학					1			1	
15	김병관	M.T.	Phi.철학			2	6			8		
			Kin.체육					2			2	
16	김현문	M.T.	OMP.기타의약학	1	2		1	4	6	1	15	
17	김형록		PrM.예방의학	6				6	1	2	15	
		D.T.	OMP.기타의약학					1			1	
			PsS.심리과학					10			10	
		M.T.	PsS.심리과학					3			3	
	J.P.	InR.학제간연구					1			1		

18	박시익	M.T.	OMP.기타의약학	1			1	14
			O.H.기타인문학	2			2	
			Geo.지리학	7			7	
			ArS.지역학	4			4	
19	박지하	D.T.	KoM.한의학	1	2	1	4	14
			M.T.	KoM.한의학	1	2	3	
			J.P.	KoM.한의학	4	1	2	
20	이수경	M.T.	Edu.교육학			10	10	14
			J.P.	PsS.심리과학			2	
21	정헌택	J.P.	Kin.체육	4	1		5	14
			InR.학제간연구	8			1	
22	한창현	D.T.	KoM.한의학			1	1	14
			J.P.	KoM.한의학	6	2	2	
23	홍원식	D.T.	KoM.한의학	1	1		1	3
			M.T.	Phi.철학		4		4
			M.T.	KoM.한의학	1	3	3	7

GG. : General Gigong(기공일반)

PhG. : Philosophy of Gi(기철학)

DI. : Do-In(도인)

TSP. : Taoist Sexual Practices(방중)

EGT. : External Gigong Therapy(외기발공)

ArS. : Area Studies(지역학)

CogS. : Cognitive Science(인지과학)

FaM. : Family Medicine(가정의학)

Geo. : Geography(지리학)

InR. : Interdisciplinary Research(학제간연구)

Kin. : Kinesiology(체육)

KoM. : Korean Medicine(한의학)

SG. : Science of Gi(기과학)

ND. : Nae-Dan(내단)

Mdt. : Meditation(명상)

LN. : Life Nurturing(양생)

OMP. : Other Medicine and Pharmacy(기타의약학)

PoS. : Political Science(정치외교학)

PrM. : Preventive Medicine(예방의학)

PsS. : Psychological Science(심리과학)

Psy. : Psychiatry(정신의학)

Sta. : Statistics(통계학)

D.T. : Doctoral Thesis, M.T. : Master's Thesis, J.P. : Journal Paper

### (3) 저자 종합 분석

주저자와 공동 저자 또는 지도 교수를 모두 종합해 조사했을 때 결과는 김낙필이 112건으로 가장 많았고, 김병채 85건, 허일웅 47건, 김정호 43건, 양은용 39건, 정경희 38건, 이기남 33건, 김경철 32건, 이진수 30건, 김미리혜 27건 등으로 나타났다(Table 27).

**Table 27. List of Author + Co-Author(or Thesis Director) Who Published More than 14 Gi-Gong Related Studies.**

No.	Name	Author				Co-Author / Thesis Director				Total
		D.T.	M.T.	J.P.	Subtotal	D.T.	M.T.	J.P.	Subtotal	



1	김낙필	1	1	28	30	14	68		82	112
2	김병채			1	1	5	79		84	85
3	허일웅	1		10	11	8	27	1	36	47
4	김정호		1	18	19		17	7	24	43
5	양은용			10	10	4	25		29	39
6	정경희		1	20	21	6	11		17	38
7	이기남			1	1	2	17	13	32	33
8	김경철			14	14		1	17	18	32
9	이진수			24	24	1	5		6	30
10	김미리혜			2	2		20	5	25	27
11	이명수			15	15			11	11	26
12	이상남	1	1	2	4	2	3	17	22	26
13	정우진		1	24	25					25
14	김형록			9	9	11	3	1	15	24
15	윤종화					1	2	21	24	24
16	정광조					1	19	2	22	22
17	한창현	1	1	6	8	1		13	14	22
18	정우열			18	18			3	3	21
19	김경환	1	1	8	10			10	10	20
20	윤사순			3	3	2	15		17	20
21	권영규			1	1	1	7	10	18	19
22	김지선	1		10	11		1	7	8	19
23	방건웅			18	18			1	1	19
24	심준영	1		12	13	2		4	6	19
25	이수경			5	5		12	2	14	19
26	정동명			9	9	1		9	10	19
27	장현갑			13	13	2	2	1	5	18
28	최영진			5	5	2	11		13	18
29	김완석			6	6	2	7	2	11	17
30	손병욱		1	10	11	1	4	1	6	17
31	김병완			1	1		15		15	16
32	김이순			8	8		1	7	8	16
33	김항배	1		6	7	2	7		9	16
34	석봉래			16	16					16
35	최일범	1		5	6	3	7		10	16
36	홍원식			2	2	3	11		14	16
37	김광호			3	3	3	3	6	12	15
38	김현문						15		15	15
39	박시익			1	1		14		14	15
40	임채우			10	10	1	4		5	15
41	정종호			11	11	1	3		4	15
42	김경희	2	2	7	11	1	2		3	14
43	류훈			4	4			10	10	14
44	박성현	1		8	9		3	2	5	14
45	박지하					4	3	7	14	14
46	송영숙			4	4		10		10	14
47	정현택							14	14	14
48	조민환	1		11	12		2		2	14

D.T. : Doctoral Thesis, M.T. : Master's Thesis, J.P. : Journal Paper

## 7) 발행지 및 발행처 분석 결과

### (1) 발행지(Journal) 분석 결과

가장 많은 기공관련 연구를 발표한 저널은 『한국정신과학학술대회논문집』으로 189건이었고, 『道敎文化研究』가 168건, 『대한의료기공학회』가 92건, 『東洋哲學研究』 84건, 『한국정신과학회지』 73건, 『東西哲學研究』 51건, 『선도문화』 49건,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42건, 『불교문화』 42건, 『哲學研究』 39건, 『명상치료연구』 37건, 『한국심리학회지』 37건, 『동의생리병리학회지』 35건, 『원불교사상과종교문화』 35건 등으로 나타났다. 기공학 분야 중에서 기공일반분야와 기과학분야는 『한국정신과학학술대회논문집』이 가장 많았고, 기철학 분야는 『東西哲學研究』, 내단 분야는 『道敎文化研究』, 도인 분야는 『대한의료기공학회』, 명상 분야는 『불교문화』, 방중, 양생분야는 『道敎文化研究』, 외기발공 분야는 『대한의료기공학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8).

**Table 28. List of Journals in which Published More than 15 *Gi-Gong* Related Studies.**

No.	Journal	Publisher	GG.	SG.	PhG.	ND.	DI.	Mdt.	TSP.	LN.	EGT.	Total
1	한국정신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한국정신과학학회	58	64	32	5	7	12	1	5	5	189
2	道敎文化研究	한국도교문화학회	5		64	64	8	1	2	24		168
3	대한의료기공학회지	대한의료기공학회	35	1	1	8	17	1		18	11	92
4	東洋哲學研究	동양철학연구회	2		66	4	1	2		9		84
5	한국정신과학회지	한국정신과학학회	9	39	13	4		4		3	1	73
6	東西哲學研究	한국동서철학회	1		45	2				3		51
7	선도문화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국학연구원	5		4	30	6	4				49
8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대한한의학원전학회	2	1	21			2		16		42
9	불교문화	대한불교진흥원						42				42
10	哲學研究	대한철학회			32			7				39
11	명상치료연구	한국명상치료학회				1		36				37
12	한국심리학회지	한국심리학회			2			35				37
13	동의생리병리학회지	한의병리학회	5	2	7		12	1		8		35
14	원불교사상과종교문화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3	13	3		13		3		35
15	한국철학논집	한국철학사연구회			24	3		1		4		32
16	韓國思想과文化	한국사상문화학회	1		22	5		2		2		32
17	哲學論叢	새한철학회			25	1		2		3		31
18	醫林	의림사	14	1	10					6		31
19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	9		3		2	12		5		31
20	명상심리상담	한국명상상담학회				1		28				29
21	禪武學術論集	國際禪武學會	5		1	1	10	6		5		28
22	東洋哲學	한국동양철학회	1	2	18	2		1		4		28
23	한국체육학회지	한국체육학회	4		1	8	12	1		2		28
24	한국체육철학회지	한국체육철학회	2		4	6	9	2		5		28

25	한국스포츠티서치	한국스포츠티서치	2	2	7	11	5		27
26	大同哲學	대동철학회		18	3		2	2	25
27	한국사회체육학회지	한국사회체육학회	4		5	11	2	2	24
28	新人間	新人間社		7	15			2	24
29	哲學	한국철학회		21			1	1	23
30	儒敎思想文化研究	한국유교학회		21			1	1	23
31	儒學研究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2			1		23
32	대한예방한의학회지	대한예방한의학회	4	1		4		13	22
33	禪學	한국선학회			1		21		22
34	한국체육과학회지	한국체육과학회	4	1		9	6	1	21
35	스트레스연구	대한스트레스학회	1		3	2	12	1	1
36	한국명상학회지	한국명상학회					20		20
37	동아시아불교문화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19		19
38	東洋醫學	東洋醫學研究院	7	4				8	19
39	韓國佛敎學	한국불교학회		1			18		19
40	大巡思想論叢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6	12			1	19
41	中國學報	한국중국학회	4	7	1			6	18
42	韓方再活醫學科學會誌	한방재활의학과학회	1	1	1	3	6	5	1
43	佛敎學報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1		1	15		17
44	退溪學報	퇴계학연구원			17				17
45	대동문화연구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5			1	16
46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한국한의학연구원	6	3		4	1	2	16
47	陽明學	한국양명학회		14			1	1	16
48	대한무도학회지	대한무도학회	3		1	10		1	15
49	韓國의鍼灸	韓國의鍼灸社	6	2		3		4	15
50	栗谷學研究	울곡연구원			14			1	15
51	동서간호학연구지	경희대학교 동서간호학연구소		1	1	1	3	9	15

GG. : General Gigong(기공일반)

PhG. : Philosophy of Gi(기철학)

DI. : Do-In(도인)

TSP. : Taoist Sexual Practices(방중)

EGT. : External Gigong Therapy(외기발공)

SG. : Science of Gi(기과학)

ND. : Nae-Dan(내단)

Mdt. : Meditation(명상)

LN. : Life Nurturing(양생)

## (2) 발행처 분석 결과

가장 많은 기공관련 학위논문을 발표한 상위 20개 대학의 발표 논문을 조사해 본 결과, 원광대학교가 21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동국대학교 143건, 성균관대학교 110건, 창원대학교 94건, 명지대학교 76건, 영남대학교 71건, 경희대학교 60건, 서울대학교 49건,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44건 등으로 나타났다. 기공학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공일반 분야와 도인 분야에서는 명지대학교가, 기철학 분야는 성균관대학교, 내단 분야는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명상분야는 동국대학교, 양생 분야는 원광대학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9).

**Table 29. List of the Top 20 Universities with the Most *Gi-Gong* Related Studies Published.**

No.	Publisher	Thesis	GG.	SG.	PhG.	ND.	DI.	Mdt.	TSP.	LN.	EGT.	Total
1	원광대학교	D.T.	1	1	8	14	2	11	1	5		43
		M.T.	13	3	39	17	23	35		38	1	169
2	동국대학교	D.T.			9	2	2	11		2		26
		M.T.	2		22	1	1	89		2		117
3	성균관대학교	D.T.	1		29		3	1		2		36
		M.T.	1		59	1	2	5		6		74
4	창원대학교	D.T.						8				8
		M.T.	1		1		1	83				86
5	명지대학교	D.T.	1			1	7	3		2		14
		M.T.	16	2		5	31	4		3	1	62
6	영남대학교	D.T.			3	1	1	9		1		15
		M.T.	3	1	30		4	18				56
7	경희대학교	D.T.	3		5	5	1			6		20
		M.T.	3		12	4	8	1		11	1	40
8	고려대학교	D.T.	3		9	2	1	3				18
		M.T.	1		20	1	5	8		5		40
9	서울대학교	D.T.			9	3	2	3		1		18
		M.T.			17	5		8		1		31
10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D.T.	2		1	7	1					11
		M.T.	1	1	2	23	2	4				33
11	대전대학교	D.T.	1		2	1	1	1		3		9
		M.T.	7	3	5	3	4	8		2	2	34
12	이화여자대학교	D.T.			5	2		2		3		12
		M.T.	1		16	1	1	8		2		29
13	동아대학교	D.T.	3		5	1	5	1				15
		M.T.		1	9	2	4	8		1		25
14	덕성여자대학교	M.T.			1			38				39
15	연세대학교	D.T.			6	1	2					9
		M.T.	2	1	10	3	2	5		4		27
16	대구한의대학교	D.T.	5		2	1	3	1		1		13
		M.T.	6	3	6		3	2		2	1	23
17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D.T.	2	1	3	1	2	18		1		28
		M.T.	1		2		1	2		1		7
18	홍익대학교	D.T.			3			1				4
		M.T.			23			5				28
19	전북대학교	D.T.	1		2			2				5
		M.T.	3		6	1	5	9				24
20	부산대학교	D.T.			2	3	2	3				10
		M.T.			6		4	8		1		19

GG. : General Gigong(기공일반)

PhG. : Philosophy of Gi(기철학)

DI. : Do-In(도인)

TSP. : Taoist Sexual Practices(방중)

SG. : Science of Gi(기과학)

ND. : Nae-Dan(내단)

Mdt. : Meditation(명상)

LN. : Life Nurturing(양생)

EGT. : External Gigong Therapy(외기발공)  
 D.T. : Doctoral Thesis, M.T. : Master's Thesis

가장 많은 기공관련 논문을 발표한 발행처는 한국정신과학회(262건)이고, 다음으로 한국도교문화학회(168건), 대한의료기공학회(92건), 동양철학연구회(84건),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국학연구원(52건), 한국동서철학회(51건), 대한불교진흥원(46건), 대한한의학원전학회(42건), 원광대학교원불교사상연구원(41건), 대한철학회(39건) 등으로 나타났다. 연구 방법별로 분석한 결과 실험연구와 질적연구는 한국정신과학회(각각 48건, 35건)로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분석연구는 한국도교문화학회(168건), 기술연구는 한국심리학회(19건) 등으로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0).

**Table 30. List of Publisher which Published More than 15 *Gi-Gong* Related Studies**

No.	Publisher	Journal	M.S.C.	D.R.	A.R.	E.R	Q.R	Total
1	한국정신과학회	한국정신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InR.학제간연구	7	136	28	18	189
		한국정신과학회지	InR.학제간연구	5	31	20	17	73
2	한국도교문화학회	道敎文化研究	Rel.종교학			168		168
3	대한의료기공학회	대한의료기공학회지	KoM.한의학	17	59	10	6	92
4	동양철학연구회	東洋哲學研究	Phi.철학		84			84
5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국학연구원	선도문화	Phi.철학	6	34	5	4	49
		국학연구원학술대회	Phi.철학		1		1	2
		국학연구원학술발표대회논문집	Phi.철학		1			1
6	한국동서철학회	東西哲學研究	Phi.철학		49		2	51
7	대한불교진흥원	불교문화	Bud.불교학	1	41			42
		불교와문화	Bud.불교학		3		1	4
8	대한한의학원전학회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KoM.한의학	2	40			42
9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원불교사상과종교문화	Rel.종교학		32		3	35
		정신개벽	Rel.종교학		5			5
		원불교사상연구원	Rel.종교학		1			1
10	대한철학회	哲學研究	Phi.철학		39			39
11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PsS.심리과학	19	9		9	37
		한국심리학회학술발표논문집	PsS.심리과학		1			1
12	한국체육학회	한국체육학회지	Kin.체육	5	13	8	2	28
		국제스포츠과학술대회	Kin.체육		3	4		7
		한국체육학회학술발표논문집	Kin.체육			2	1	3
13	한국명상치료학회	명상치료연구	PsS.심리과학	4	16		17	37
14	한의병리학회	동의생리병리학회지	KoM.한의학	3	21	5	6	35
15	한국철학사연구회	한국철학논집	Phi.철학		32			32
16	한국사상문화학회	韓國思想과文化	K.L.한국어와문학		32			32
17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KoM.한의학	18	7	4	2	31
18	새한철학회	哲學論叢	Phi.철학		29		2	31
19	의림사	醫林	KoM.한의학	3	28			31
20	한국명상상담학회	명상심리상담	PsS.심리과학	5	8		16	29

21	國際禪武學會	禪武學術論集	Kin.체육	6	17	2	3	28	28
22	한국체육철학회	한국체육철학회지	Kin.체육	1	25		2	28	28
23	한국스포츠리서치	한국스포츠리서치	Kin.체육	15	4	7	2	28	28
24	한국동양철학회	東洋哲學	Phi.철학		28			28	28
25	대동철학회	大同哲學	Phi.철학		25			25	25
26	新人間社	新人間	Rel.종교학		24			24	24
27	한국사회체육학회	한국사회체육학회지	Kin.체육	14	4	5	1	24	24
		韓國佛敎學	Bud.불교학	5	7		7	19	
28	한국불교학회	한국불교학회학술발표논문집	Bud.불교학	1	3			4	24
		한국불교학회위크숍자료집	Bud.불교학		1			1	
29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儒學研究 기호학파의철학사상	Cof.유교학		23			23	24
			Cof.유교학		1			1	
30	한국철학회	哲學	Phi.철학		22		1	23	23
31	한국유교학회	儒敎思想文化研究	Cof.유교학		23			23	23
32	대한예방한의학회	대한예방한의학회지	KoM.한의학	6	13	1	2	22	22
33	한국선학회	禪學	Bud.불교학	1	20		1	22	22
34	한국체육과학회	한국체육과학회지	Kin.체육	1	6	5		21	21
35	한국명상학회	한국명상학회지	PsS.심리과학	5	12		3	20	20
36	대한스트레스학회	스트레스연구	Psy.정신의학	11	6	2	1	20	20
37	대구한의대학교 제한동의학술원	東西醫學 황제의학 濟韓東醫學術院論文集	KoM.한의학 KoM.한의학 KoM.한의학	2 7 2	6 7 1	2 7 1		10 7 3	20
38	東洋醫學研究院	東洋醫學	KoM.한의학		19			19	19
39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大巡思想論叢	Rel.종교학		19			19	19
40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동아시아불교문화	Bud.불교학	4	8		7	19	19
41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연구보고서	KoM.한의학 KoM.한의학	2	11	3		16 2	18
42	한방재활의학과학회	韓方再活醫學科學會誌	KoM.한의학	4	12	2		18	18
43	한국중국학회	中國學報	C.L.중국어와문학		18			18	18
44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대동문화연구 東洋學國際學術會議論文集	O.H.기타인문학 O.H.기타인문학		16 2			16 2	18
45	퇴계학연구원	退溪學報	Cof.유교학		17			17	17
46	대한무도학회	대한무도학회지 국제무도학술대회	Kin.체육 Kin.체육	3	10	1	1	15 2	17
47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佛敎學報	Bud.불교학	2	3		12	17	17
48	동양사회사상학회	社會思想과文化 동양사회사상	Soc.사회학 Phi.철학		12 4		1	13 4	17
49	한국양명학회	陽明學	Phi.철학		16			16	16
50	경희대학교 동서간호학연구소	동서간호학연구지	Nur.간호학	7	6	1	1	15	15
51	울곡연구원	栗谷學研究	O.H.기타인문학		15			15	15
52	韓國의鍼灸社	韓國의鍼灸	KoM.한의학		15			15	15

D.R. : Descriptive Research(기술연구)

A.R. : Analysis Research(분석연구)

E.R. : Experimental Research(실험연구)

Q.R. : Qualitative Research(질적연구)

---

<b>Bud.</b> : Buddhism(불교학)	<b>Nur.</b> : Nursing Science(간호학)
<b>C.L.</b> : Chinese/Chinese Literature(중국어와문학)	<b>O.H.</b> : Misc. Humanities(기타인문학)
<b>Cof.</b> : Confucianism(유교학)	<b>Phi.</b> : Philosophy(철학)
<b>InR.</b> : Interdisciplinary Research(학제간연구)	<b>PoS.</b> : Psychological Science(심리과학)
<b>K.L.</b> : Korean/Korean Literature(한국어와문학)	<b>Psy.</b> : Psychiatry(정신의학)
<b>Kin.</b> : Kinesiology(체육)	<b>Rel.</b> : Religion(종교학)
<b>KoM.</b> : Korean Medicine(한의학)	<b>Soc.</b> : Sociology(사회학)
<b>M.S.C</b> : Middle Subject Categories(중주제 분류)	

## IV. 考察

### 1. 시기별 기공학 연구 동향

Han은 『2008년 Han의 논문』에서 기공관련 연구는 1990년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다가 2000년도부터 하향한다고 하였고, 본 연구진은 『2016년 논문』에서 Han의 연구와 달리, 2008년 이후 2015년까지 연도별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지 않았고, 꾸준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 기공관련 연구가 줄어드는 경향의 원인에 대해서 Han은 90년도에 불기 시작한 기열풍의 여파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거품이 빠진 현상이며, 중국의 법륜공 사태<sup>주3</sup> 영향으로 국내의 기공 단체 및 수련도 다소 주춤할 수 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기공관련 연구도 점점 위축되고, 줄어들었을 것으로 추측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진의 『2016년 논문』에서는 “한국 기공은 중국 기공과는 달리, 문화혁명이나 법륜공 사태 같은 시련기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거품이 빠지면서 더 자유분방하고, 자발적인 연구 풍토가 조성되었고, 좀 더 탄탄하고 내실 있는 학문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었다”라고 추론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원인과 결과의 시각 차이는 당초 같은 방식과 형식으로 단순 비교하려 했던 계획에서 벗어나, 기공의 범주, 기공 관련성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선정하고, 기공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기공의 범주에 기철학과 명상을 포함시키는 등의 변화를 주었기 때문에 나타난 당연한 결과였다. 하여 본 연구진은 필연적으로 이러한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여야 하였기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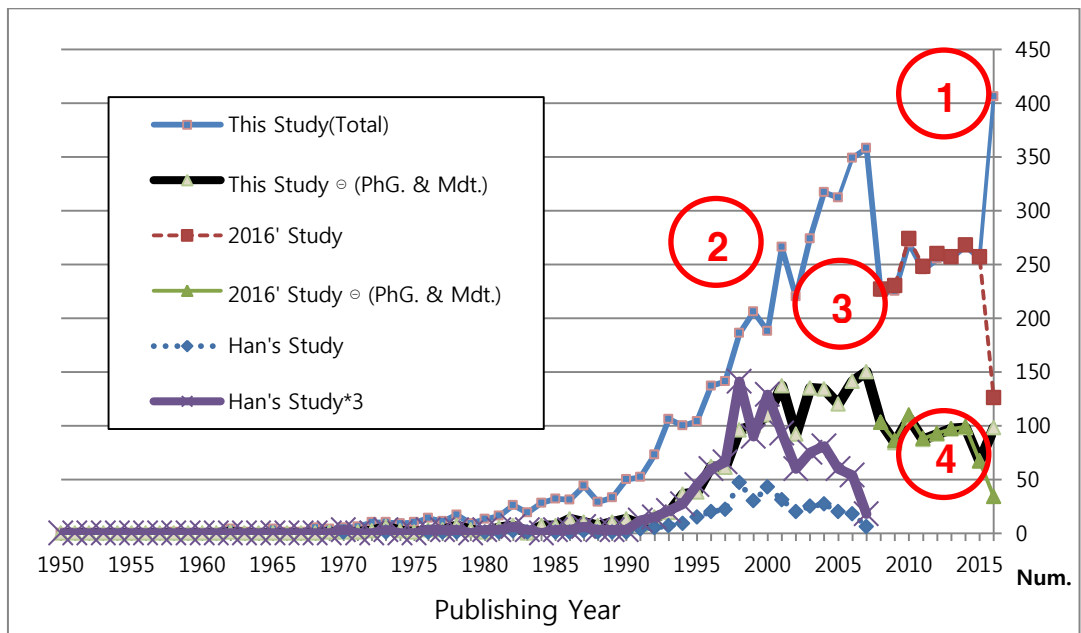
---

주3. 법륜공 사태 : 중국정부가 1999년 7월, 법륜대법연구회와 산하 조직을 불법화하고,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이후 법륜공 지도부 70여 명 검거, 중국 전역에서 3만여 명의 수행자들을 구금하였으며, 2001년까지 237명이 목숨을 잃고, 600여 명이 강제로 정신병원에 갇히는 등 법륜공을 탄압한 사태. [네이버 지식백과] 법륜공[法輪功]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92580&cid=40942&categoryId=39994>

에 Han이 조사 발표한 2008년 이전 시기의 연구에 대해서 『2016년 논문』과 같은 형식과 방법으로 재조사를 하게 되었고, 그 결과 1950년부터 2016년까지 일관된 기준과 관점으로 기공학 관련 연구 동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파악된 연구 동향에서 몇 가지 특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 첫째, Han의 연구에서 발표한 대로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에 들어서 기공학 관련 연구가 급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둘째, 2007년을 정점으로 2008년부터 눈에 띄게 연구보고가 줄어들게 나타났다. 셋째, 2008년 이후부터는 2007년까지 보여왔던 급등세는 보이지 않고 비슷한 수준으로 꾸준히 연구 보고되고 있으며 완만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를 『2008년 Han의논문』과 『2016년 논문』을 같이 비교한 그림(Fig. 18)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Fig. 18. Comparison of the number of *GiGong* related studies by publishing year from 1950 to 2016 in this study, 2016' Study and Han's Study.**

첫째, 『2016년 논문』에서 조사된 2016년 상반기까지 발행된 논문 수와 본 연구에서 재조사한 2016년 하반기까지의 논문 수가 3배 이상으로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 이는 2008년에서 2015년까



지 변화 양상에 비추어 볼 때 비정상적이며, 본 연구의 필연적 한계를 드러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추론컨대, 이러한 비정상적 변화는 검색사이트의 검색 알고리즘의 변화도 무시할 수 없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비록 동일한 선정 기준을 마련하였다고 하더라도 매 연구 시점별 연구자의 관점 차이가 존재할 수 밖에 없어 기공관련 논문으로 선정되는 채택률 차이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기공관련 연구가 급증하는 시점에서 약간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지만 이 시기 급증하는 양상은 일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기철학, 명상 분야가 포함된 경우는 1980년대 후반부터 급증하기 시작해서 2007년까지 계속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2008년 Han의논문』에서는 90년대 중반에서 서서히 증가하다가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까지 급등세를 보이다가 다시 급격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달리 본 연구에서 기철학, 명상 분야를 제외한 경우에는 『2008년 Han의 논문』 처럼 90년대 중반부터 서서히 증가하다가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까지 급등세를 유지하다가 이후 큰 하락 없이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세가지 경우 모두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 전후의 양상에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의 급증하는 양상은 일치하고 있다. 특히 비교의 편의를 위해 『2008년 Han의 논문』 결과값에 3배를 곱한 경우(표본수의 차이를 고려해 3배수를 사용함)와 본 연구의 기철학, 명상을 제외한 경우는 1990년대 초부터 2000년 초까지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구간이라 할 수 있겠다. 결국,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공 연구는 90년대 초부터 불기 시작한 기 열풍의 효과로 기공학 연구가 2000년 초반에 그 절정을 이루었음을 실증할 수 있었다.

셋째, 2000년부터 2007년까지는 기공학 연구 동향이 연구별로 완전히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 기철학, 명상 분야가 포함된 경우에는 여전히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기철학 명상 분야를 뺀 경우에는 비슷한 수준으로 평행선을 그리는 추세라면, 『2008년 Han의 논문』은 급격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2008년 Han의 논문』과 본 연구의 선정 기준 차이도 있겠지만, 2008년 당시 논문검색 시스템과 2017년 본 연구 조사 시점의 논문 검색 시스템의 정밀도와 데이터 구축의 완성도 차이에서도 큰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기공학 연구 동향을 분석하면, 기공을 광의적으로 해석하여 포함된 기철학, 명상 분야는 여전히 더욱 더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나머지 전형적인 기공학 분야는 붉은 가라앉은 상태이지만, 주춤하거나, 침체되지 않고 꾸준히 연구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2007년을 정점으로 증가하던 기공학 연구가 2008년 이후 갑작스런 하락세를 보인 뒤 그 이후에 큰 등락폭이 없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고 완만하게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2016년 논문』에서 이미 밝힌 내용이므로 새로운 것은 없지만,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본 연구에서 조사된 2007년 이전까지의 경향과 추세에 비하면 2008년 이후 지나치게 급격한 하락폭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 역시 본 연구와 『2016년 논문』 연구 사이에 일관되지 못한 한계점이 노출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급격한 하락폭을 보인 원인에 대해 몇 가지 추측되는 것은 첫째, 앞서 언급하였듯이 『2016년 논문』 검색 당시 검색 알고리즘과, 2017년 본 연구 조사 당시 검색 알고리즘에 변화가 생기면서 검색 원본데이터의 양적 차이가 커진 영향일 것으로 보인다. 둘째, 역시 앞서 밝혔듯이 매 연구 시점별 연구자의 관점 차이가 존재함에 따라 발생한 기공관련 논문 채택률 차이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에서 기철학, 명상을 제외한 경우에는 하락폭이 그다지 크지 않아 정상적인 변화 양상으로 보이는 바, 실제 2008년부터 연구수가 줄어드는 원인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측되나 이는 더 많은 연구를 통해 명확히 증명해야 할 부분으로 향후 연구 과제라 할 수 있겠다.

## 2. 분야별 기공학 연구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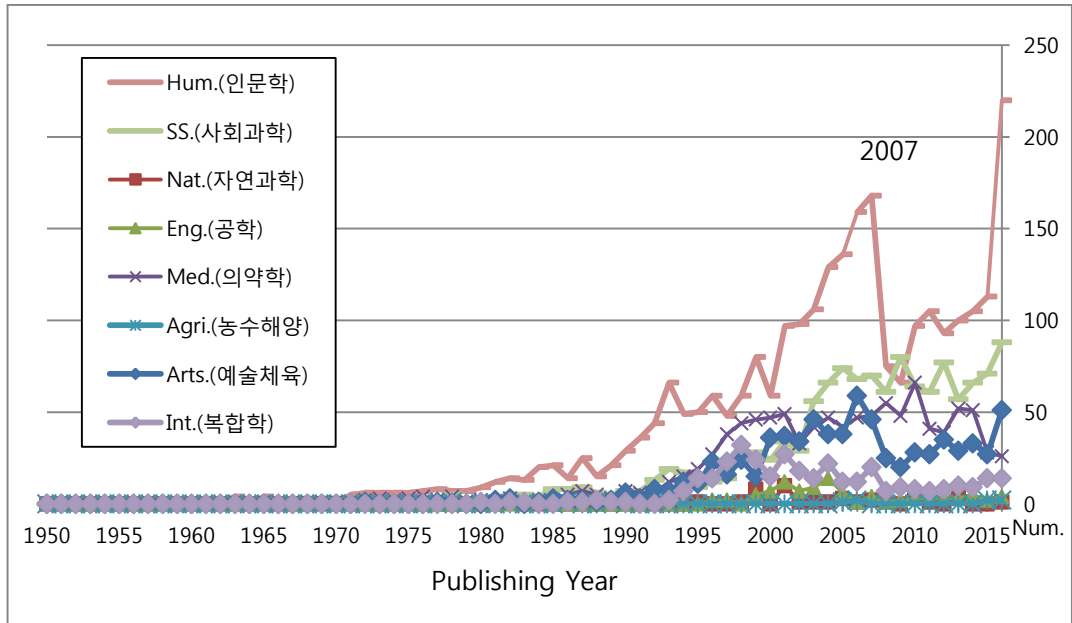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기공학 관련 연구의 전반적인 시기별 동향 파악에 이어, 기공학 연구의 내용적 측면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기공 관련 논문으로 선정된 논문들의 연구 분야를 KCI(Korea Citation Index) 분류체계의 대분류와 중분류에 따라 분류하였다. 또한 기공학 분야를 9개 분야로 세분하여 다음과 같은 분야별 기공학 연구 동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먼저, KCI의 분류체계에 의한 연구 주제별 동향을 살펴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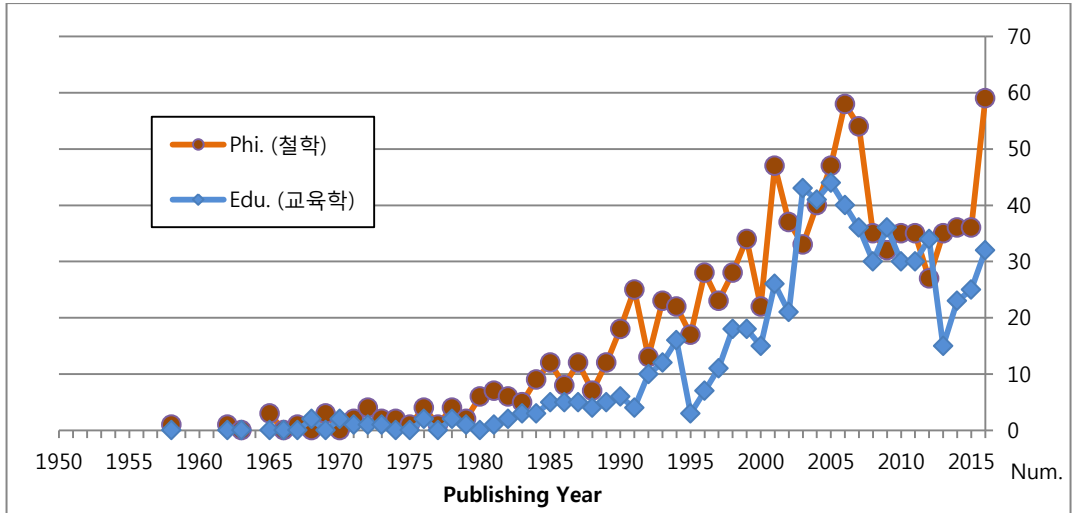
첫째, 연구 주제별 대분류 결과 가장 많은 분야는 인문학 분야(2,686건;43.07%)였고, 가장 적은 분야는 농수해양 분야(10건;0.16%)였다. 이어 사회과학, 의약학, 예술체육, 복합학 분야 순으로 많게 나타났다. 또한 대분류를 세부화한 중분류 결과는 철학분야(1,014건;16.25%)가 가장 많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육학(671건;10.75%), 한의학(628건;10.06%), 체육(522건;8.37%) 등으로 나타났다.

KCI 분류체계에 의한 분석은 기공학을 연구하는 학문 계열의 연구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시기별로 분석을 하여 각 계열의 연구 동향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림(Fig. 19)을 통해 살펴보면, 인문학 계열은 다른 계열보다 먼저인 1980년대 후반부터 연구가 활발해지기 시작하더니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 초반까지 증가세가 둔화되다가 20007년까지 다시 가파르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후 2007년을 정점으로 2008년 급감하지만 이후 다소 줄긴 했어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 이후에 급감하는 양상이 본 연구의 한계점에 의한 것이라 감안하면 인문학 계열 연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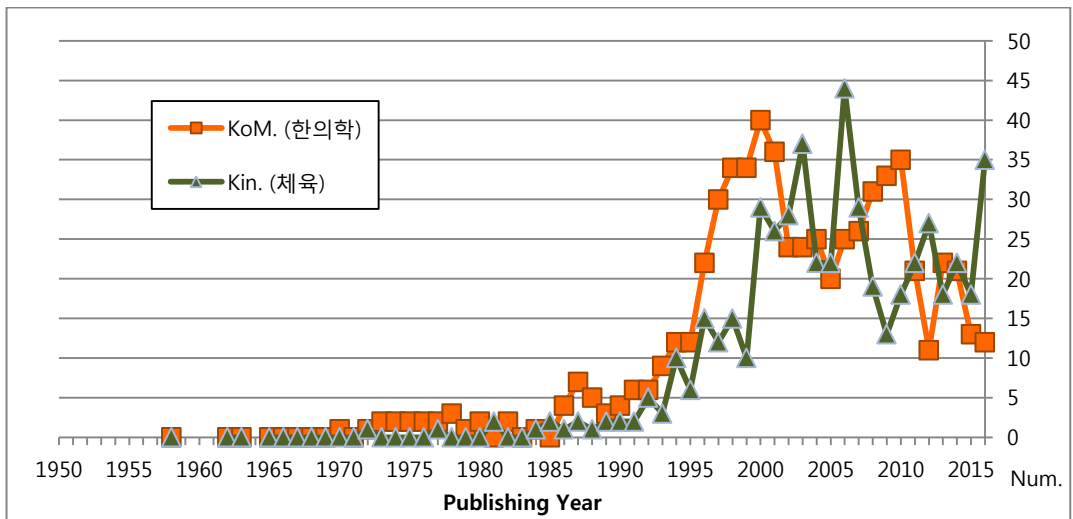
반면, 나머지 계열은 대부분 1990년대 중반부터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하고 있다. 이 중 특히 사회과학 계열은 2008년에 급감하는 양상 없이 계속 꾸준히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의약학 계열은 2008년 이후에 급감하는 양상을 보이지는 않지만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예술체육 계열은 인문학과 비슷하게 2007년까지 증가하다가 2008년 급감하고 이후 서서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결국 각 계열별 기공학 연구는 조금씩 등락의 편차는 있지만 꾸준히 연구가 지속되고 있거나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었다.



**Fig. 19. The number of *Gigong* related studies by Main Subject Categories per publishing year from 1950 to 2016**



**Fig. 20. The number of *Gigong* related studies by Philosophy and Education(Phi. and Edu.;Middle Subject Categories) per publishing year from 1950 to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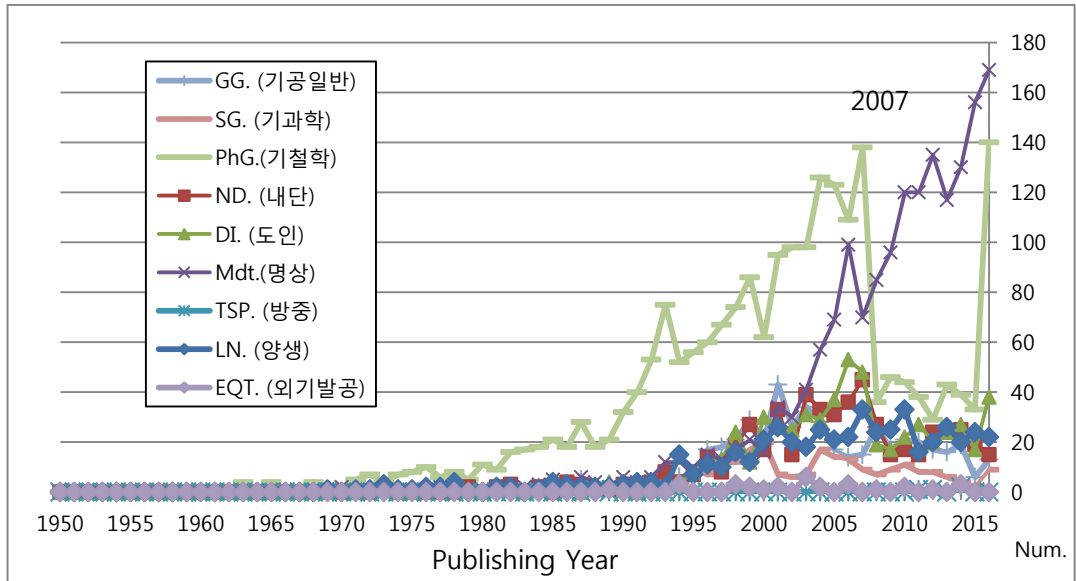
**Fig. 21. The number of *Gigong* related studies by Korean Medicine and Kinesiology (KoM. and Kin.;Middle Subject Categories) per publishing year from 1950 to 2016.**

한편 계열별 기공학 연구 동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KCI 분류 체계의 중분류를 통해 파악된 다수 분야인 철학, 교육학, 한의학, 체육 분야의 시기별 연구 동향을 Fig. 20과 21을 통해 살펴보면, 철학 분야는 상위 분야인 인문학 분야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즉 1980년 중반부터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2007년까지 계속 급증하다가 2008년 급감하면서 평행세를 유지하다가 2016년에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교육학 분야는 1990년대 중반에서야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했고, 2000년 중반까지는 급증하다가 이후 다소 하락세를 보이면서 2016년에는 급증하지 않았다.

한의학 분야는 1990년대 초부터 2000년 초까지 연구가 급증하더니 2005년까지 하락하다가 2010년까지 다시 증가세를 보이더니 이후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체육학 분야는 1990년대 초부터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하면서 2000년까지 다소 완만하게 증가하더니 2001년에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2006년 까지 등락을 반복하며 급증하더니 다시 급락과 급증을 거듭하면서 2016년에는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다.

다음으로 기공 분야별로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기철학(2,148건:34.45%) 분야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명상(1,700건), 도인(589건), 내단(543건), 양생(515건), 외기발공(30건), 방중(5건) 순으로 나타났다.



**Fig. 22. The number of *Gigong* related studies by *Gigong* Categories per publishing year from 1950 to 2016.**

이를 Fig. 22를 통해 시기별로 살펴보면, 기철학 분야는 1990년대 초반부터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했으며, 2007년까지 빠르게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08년에 급감하면서 다시 2016년에 급상승하였는데, 본 연구의 한계점을 감안하면 2008년부터 2016년까지는 비슷한 수준으로 평행세를 유지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명상분야는 2000년 초반부터 급상승세를 보이더니 2016년까지 계속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본 연구의 한계점이 기철학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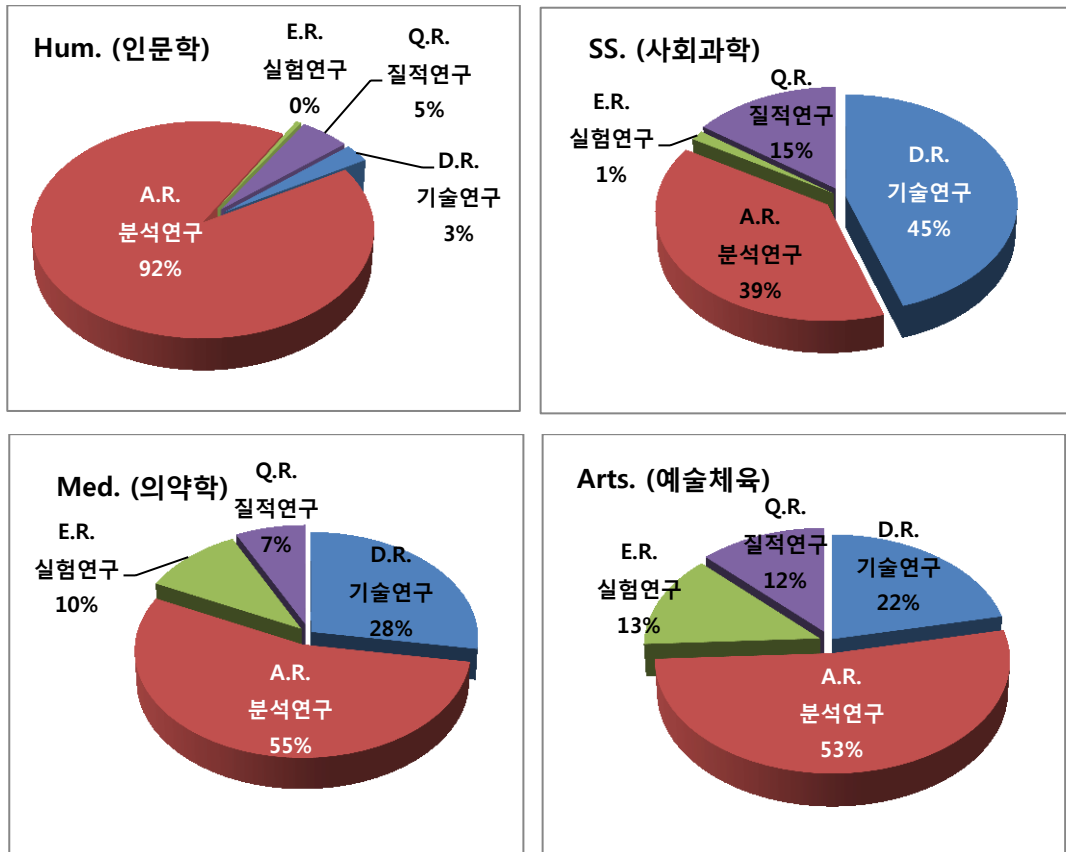
나머지 기공학 분야는 대체적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연구가 활발해지기 시작하면서 2000년대 중반까지는 다소 상승세를 보이다가 2000년 후반부터는 약간 하락세를 보이거나 평행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기과학 분야는 2000년 초반에 가장 활발해지다가 이후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상으로 기공학 연구의 분야별 동향을 살펴봤을 때, 대부분의 분야는 1990년대 시작된 기 열풍에 의해 연구가 활발해지기 시작하면서 다소 등락은 있지만 꾸준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면 명상 분야는 점점 더 매우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반면, 기과학 분야는 점점 쇠락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양상의 원인은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에 절정을 이룬 기 열풍의 영향으로 ‘氣’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고자 하는 연구와 노력이 많이 시도 되었지만 ‘氣’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데에는 아직까지 많은 한계에 부딪치다 보니 이에 대한 열정과 열의가 많이 감소된 반면, 명상 분야는 본래 그 근원이 불교의 禪에 있다 보니 대중들이 명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불교계에서는 대중화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는 명상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증가되었을 것으로 추론된다. 또한 1990년대 ‘오쇼 라즈니쉬’, ‘크리슈 나무르티’ 등의 명상가들이 전세계에 명상 열풍을 불러일으킴에 따라 명상이 전세계적으로 보편화되고 대중화되어 그에 따른 연구가 급증하였고, 지금은 종교적 성향에서 벗어나 예술, 문화, 건강, 교육 등의 수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고 관심 갖게 된 점이 중요한 원인이었을 것으로 추론된다.

끝으로 분야별 연구방법에 대한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2016년 논문』에서 사용한 분류법과 동일하게 분류하였는데, 전체적으로는 분석연구가 4,199건(67.33%)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기술연구(1,146;18.37%), 질적연구(562;9.01%), 실험연구(332;5.32%)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구 분야별로 살펴보면, 인문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예술체육, 복합학 분야는 분석연구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사회과학 분야는 기술연구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인문

학 분야는 91.70%가 분석연구 방법이고, 의약학 분야는 분석연구 57.72%, 기술연구 27.56%, 실험 연구 10.52%로 비교적 다양한 연구방법을 선택하고 있었다. 예술체육 분야도 분석연구 52.53%, 기술연구 21.68%, 실험연구 13.30%, 질적연구 12.50%로 분석연구가 다수였지만 역시 비교적 다양한 연구방법을 선택하고 있었다. 반면, 사회과학 분야는 기술연구 44.92%, 분석연구 38.77%, 질적연구 14.89%, 실험연구 1.42%로 오히려 기술연구 방법을 더 선호하는 특징을 보였다(Fig. 23).



**Fig. 23. The ratio of Research Method in Humanities(Hum.), Social Sciences(SS.), Medicine(Med.) and Arts and Kinesiology(Arts.) categories.**

또한 기공 분야에 따라 살펴보면, 기철학 분야에서는 분석연구가 94.88%(2,038건)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기공일반, 기과학, 내단, 도인, 양생, 방중 분야도 분석연구가 제일 많았던 반면에 명상 분야는 기술연구가 41.59%(707건)로 분석연구(37.76%:642건)보다 더 많이 나타났고, 외기발

공 분야에서는 실험연구가 63.33%(19건)으로 분석연구(16.67%;5건)보다 많이 나타났다. 이를 연구 방법별로 살펴보면, 기술연구는 명상(61.69%), 분석연구는 기철학(48.52%), 실험연구는 기과학(24.70%), 도인(24.40%), 질적연구는 명상(54.63%)에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분야별로 좀 더 선호하는 연구방법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3. 기공학 연구자 및 연구단체 동향

『2016년 논문』에서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기공학 연구자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주저자와 공동저자로 구분하고 공동저자가 드문 학위논문의 경우는 공동저자 대신 지도교수를 조사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주저자로 10편 이상을 발표한 연구자는 총 34명이고 이중 가장 많은 연구를 발표한 주저자는 김낙필로 총 30편의 연구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공동저자 또는 학위논문의 지도교수로 14편 이상을 발표한 연구자는 총 23명으로 이중 가장 많이 연구 발표한 공동저자(또는 지도교수)는 김병채로 총 84편이었다. 또 주저자와 공동저자(지도교수)를 모두 합쳐서 14편 이상을 발표한 연구자는 총 48명으로 이중 최다수 자는 총 112편을 발표한 김낙필이었으며, 상위 15명의 개인 이력을 한국 연구자정보(Korean Researcher Information)<sup>주4</sup>에서 조사해 살펴보면 Table 31과 같다.

**Table 31. Top 15<sup>th</sup> List of Author Publishing *Gigong* Related Studies.**

R	Author	Studies *	MGC.	Belong	Department	A Major Field of Study	Degree
1	김낙필	30/0/82	ND. (22/112)	원광대학교 (재직)	한국문화학과	한국도가철학	서울대학교/박사(93)/ 한국도가철학
2	김병채	1/0/84	Mdt. (82/85)	창원대학교 (퇴직)	특수교육과	상담심리/심리치료	부산대학교/박사(93)/ 교육학
3	허일웅	11/1/35	DI. (22/47)	명지대학교 (퇴직)	체육학부	무도학 전통체육과 양생학	한양대학교/박사(93)/ 무도학
4	김정호	19/7/17	Mdt. (39/43)	덕성여자대학교 (재직)	심리학전공	건강/재활심리 만성질환관리, 질병예방, 건강증진, 스트레스관리	고려대학교/박사(89)/ 심리학
5	양은용	10/0/29	LN. (9/39)	원광대학교 (명예재직)	한국문화학과	한국불교철학 한국종교	佛敎大學(일본)/박사( 87)/한국불교철학
6	정경희	21/0/17	ND. (26/38)	국제뇌교육종합 대학원대학교 (재직)	국학부	비교사(역사학) 동아시아 비교문화	서울대학교/박사(00)/ 조선전기사

주4. <https://www.kri.go.kr>



7	이기남	1/13/19	LN. (20/33)	원광대학교 (명예재직)	한의학과	예방한의학 한방양생학	동방대학(일본)/박사(98)/예방의학
8	김경철	14/17/1	DI. (18/32)	동의대학교 (재직)	한의학과	진단학 생리학	경희대학교/박사(88)/한의학
9	이진수	24/0/6	DI. (11/30)	한양대학교 (퇴직)	체육학과	스포츠철학	미상(일본)/박사(86)/교육학
10	김미리 혜	2/5/20	Mdt. (27/27)	덕성여자대학교 (재직)	심리학전공	심리과학 임상심리/심리치료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Albany/박사(95)/psychology
11	이명수	15/11/0	GG. (20/26)	한국한의학연구 원 (재직)	근거중심의학	기타임상한의학 보완대체의학/근거중 심의학	원광대학교/박사(04)/기타한약학
12	이상남	4/17/5	GG. (15/26)	대구한의대학교 (재직)	한의학예과	예방한의학 기공학	대구한의대학교/박사(08)/한의학
13	정우진	25/0/0	LN. (12/25)	경희대학교 (재학)	철학과	중국철학 한의철학	경희대학교/박사(10)/중국철학
14	김형록	9/1/14	Mdt. (24/24)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 (재직)	자연치유학과	학제간연구 명상상담학	동국대학교 박사(00)/선학
15	윤종화	0/21/3	GG. (13/24)	동국대학교 (재직)	한의학과	침구학	동국대학교/박사(93)/한의학

\* : Author/Co-Author/Thesis Director MGC. : The Number of Major Gigong Category Studies

GG. : General Gigong(기공일반)

PhG. : Philosophy of Gi(기철학)

DI. : Do-In(도인)

TSP. : Taoist Sexual Practices(방중)

EGT. : External Gigong Therapy(외기발공)

SG. : Science of Gi(기과학)

ND. : Nae-Dan(내단)

Mdt. : Meditation(명상)

LN. : Life Nurturing(양생)

이상의 기공학 연구자들을 살펴보았을 때, 기공학 연구자들의 부류를 파악할 수 있었는데, 김낙필, 양은용, 정우진 등은 철학계에 기반을 두고 있고, 김병채, 김정호, 김미리혜, 김형록 등은 심리학계 및 불교계에, 허일웅, 이진수 등은 체육계에, 이기남, 김경철, 이명수, 이상남, 윤종화 등은 한의계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김낙필은 원광대학교 한국문화학과(동양대학원)에서 주로 내단 분야의 연구가 많았지만 기공학 전분야에 대해서 폭넓게 연구하는 기공학 전문가임을 알 수 있었으며, 김병채는 창원대학교 특수교육(교육대학원)에서 명상 분야의 전문연구자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허일웅은 명지대학교 체육학부에서 주로 도인 분야의 연구를 중심으로 한 기공 도인에 전문 연구자임을 알 수 있었고, 이기남은 원광대학교 한의학과에서 주로 양생 분야에서 기공 양생에 전문 연구자임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부류는 기공관련 연구를 많이 발표한 학위 논문의 소속대학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기공관련 가장 많은 학위논문을 발표한 곳은 원광대학교 212건이며, 다음으로 동국대학교

143건이었고, 성균관대학교 110건, 창원대학교 94건, 명지대학교 76건, 영남대학교 71건, 경희대학교 60건, 고려대학교 58건, 서울대학교 49건,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44건 등으로 나타났다

원광대학교에서는 기철학(47건), 명상(46건), 양생(43건), 내단(31건) 등 기공학 전반에 걸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90년대 말 동양학대학원에 기공학과가 설치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기공학 전문가를 양성 배출하였기 때문으로 추론되며, 이를 주도하였던 연구자가 바로 김낙필이었을 것이며 도가 철학 전공자인 만큼 기철학, 내단, 양생 분야에 두루 관심 갖는 학풍을 형성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국대학교에서는 명상(100건), 기철학(31건) 등 주로 명상 분야 연구가 많이 발표되었는데, 이는 불교학과에서 명상관련 연구를 많이 진행하였기 때문에 특히 명상에 특화된 학문풍토를 형성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성균관대학교(89건), 영남대학교(33건), 고려대학교(29건), 서울대학교(26건) 등이 기철학 분야에 많은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이는 기공관련 논문 선정 기준에 퇴계를 중심으로 한 ‘이기론(理氣論)’, ‘주기론(主氣論)’, 최한기를 중심으로 한 ‘기학(氣學)’, ‘기철학(氣哲學)’ 그리고 도교 사상, 선도 사상 등을 기철학의 범주에 포함시켜 선정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따라서 철학 사상계에서 이들 대학에 기철학 전문 연구자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창원대학교에서는 명상(91건) 분야의 연구가 대부분인데, 역시 명상에 전문 연구자인 김병채가 중심이 되어 명상 분야의 학문 풍토를 형성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원광대학교와 같이 90년대 말에 기공학과를 개설한 명지대학교는 특히 도인(38건) 분야의 연구를 많이 발표하였으며 이 역시 무도학 전공자인 허일웅이 중심이 되어 도인에 특화된 학풍을 형성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의 경우는 내단(30건)에 특화 되었는데, 이 곳은 단학선원(단월드)의 창시자인 이승헌이 총장으로 재직하였던 곳이기에 내단에 대한 연구가 많이 발표되었을 것으로 추론된다.

그리고 비록 연구 편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기공학 관련 연구를 많이 발표한 상위 10개 대학에 들지는 못했지만 대구한의대학교 또한 2000년대 초 한의계에서는 유일하게 대학원과정에 기공학을 개설하여 기공학 관련 연구를 다수 발표하였는데, 한의계의 학문 특성상 기공의 전반적인 분야를 두루 다루고 있는 학풍을 보이고 있다.

이상으로 종합해 보건대 기공학 연구자들은 크게 3대 부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는 기철학 명상을 주로 연구하는 사상계, 도인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체육계, 기공학을 전반적으로 두루 연구하는 한의학계라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개별 연구자의 동향뿐만 아니라 기공관련 연구 단체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기공관련 연구를 발표하는 학술지와 발행처를 조사하였는데, 기공 관련 연구를 가장 많이 발표한 학술지는 『한국정신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으로, 총189건의 연구를 발표하였다. 다음으로 『道敎文化研究』 168건, 『대한의료기공학회지』 92건, 『東洋哲學研究』 84건, 『한국정신과학학회지』 73건, 『東西哲學研究』 51건, 『선도문화』 49건,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42건, 『불교문화』 42건, 『哲學研究』 39건 등의 연구를 발표하였다. 이를 기공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공일반은 『한국정신과학학회지』 58건, 기과학은 『한국정신과학학회지』 64건, 기철학은 『東洋哲學研究』 66건, 내단은 『道敎文化研究』 64건, 도인은 『대한의료기공학회지』 17건, 명상은 『불교문화』 42건, 방중은 『道敎文化研究』 2건, 양생은 『道敎文化研究』 24건, 외기발공은 『대한의료기공학회지』 11건으로 기공 분야별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하였다.

결국 기공학 관련 가장 많은 연구를 발표한 단체는 ‘한국정신과학회’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발행처별로 보면 ‘한국정신과학회’ 262건, ‘한국도교문화학회’ 168건, ‘대한의료기공학회’ 92건, ‘동양철학연구회’ 84건,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국학연구원’ 52건, ‘한국동서철학회’ 51건, ‘대한불교진흥회’ 46건, ‘대한한의학원전학회’ 42건,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41건, ‘대한철학회’ 39건 등으로 나타나, 상위 15대 발행처 중 사상계 7곳, 한의계 2곳인 반면에 최다수를 차지한 ‘한국정신과학회’는 학회가 복합학을 표방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앞서 제시한 3대 부류에 속하지 않고 있다. 이는 한국정신과학회가 다양한 부류의 연구자들이 모여서 여러 분야를 폭넓게 연구하고 있는 기공학 분야에 있어서 명실상부한 가장 활발한 연구 단체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이라 하겠다.

이상과 같이 기공관련 연구를 가장 많이 발표한 학술지 10개의 간략한 이력을 조사하여 아래의 Table 32에 정리하였다.

**Table 32. Top 10<sup>th</sup> List of Publisher Publishing *Gigong* Related Studies.**

R.	Journal	Publisher	Subject Categories	Foundation Year	Current Issue*	KCI registration
1	Conference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Jungshin Science 한국정신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The Korean Society Of Jungshin Science 한국정신과학학회	Brain Science 뇌과학	1994	Vol.2017 No.10	×
2	J. of The Studies of Taoism and Culture 道敎文化研究	The Korean Academy Of Taoism And Culture 한국도교문화학회	Religion 종교학	1987	No.47 (2017)	○

3	J. of The Korean Academy of Medical Gi-Gong 대한의료기공학회	The Korean Academy of Medical Gi-Gong 대한의료기공학회	Herbal Medicine 한의학	1996	Vol.17 No.1 (2017)	×
4	J. of Eastern Philosophy 동양철학연구	The Society Of Eastern Philosophy 동양철학연구회	Philosophy 철학	1980	No.92 (2017)	○
5	J. of The Korean Society Of Jungshin Science 한국정신과학학회지	The Korean Society Of Jungshin Science 한국정신과학학회	Brain Science 뇌과학	1994	Vol.18 No.1 (2016)	×
6	Studies in Philosophy East-West 동서철학연구	Korean Society For Philosophy East-West 한국동서철학회	Philosophy 철학	1983	2017. No.86	○
7	Korean Sundo Culture Institute 선도문화	Kukhak Institute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Philosophy 철학	2006	Vol.23 (2017)	○
8	J. of Korean Medical Classics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Korean Medical Classics 대한한의학원전학회	Herbal Medicine 한의학	1987	Vol.30 No.4 (2017)	○
9	Buddhism & Dulture 불교문화	The Korean Buddhism Promotion Foundation 대한불교진흥원	Buddhism 불교학	2006	Vol.2017 No.12	×
10	J. of Korean Philosophical Society 哲學研究	Korean Philosophical Society 대한철학회	Philosophy 철학	1963	Vol.144 (2017)	○

\* : Currently up to 2017.12.31

## V. 結論

1950부터 2016년까지 한국에서 발표된 기공관련 연구동향을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기공학 연구는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 초반까지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2007년에 정점을 이룬 뒤 2008년부터 하락하지만 2008년 이후부터는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
2. 기공학 연구를 하는 주요 학계는 사상계, 체육계, 한의학계의 3대 계열이라 할 수 있다.
3. 기공학 연구의 최고 권위자는 ‘김낙필’ 이라 할 수 있고, 가장 활발히 연구하는 단체는 ‘한국정신과학학회’ 이다.
4. 기공학의 여러 분야는 대체로 고르게 연구되고 있지만, ‘외기발공’과 ‘방중’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편이다.

## VI. 參考文獻

- 1) Lee JH, Kim JH, Jung JH, Jo MG, Lee EM. *Research Trends on Qigong-related Studies in Korea since 2008*. J of Korean Academy of Medical Gi-Gong. 2016;16(1):1-58.
- 2) Han CH, Lee SN, Kwon YK, Choi SM. *Research Trends on Qigong in the Korean Journal*. Korean Journal of Oriental Physiology & Pathology. 2008;22(4):954-9.
- 3) 김우호, 홍원식. 氣功學 發達에 관한 文獻的 考察. J of the Korean Academy of Medical Gi-Gong. 1996;1(1):13-64.
- 4) Lee JK. *Analysis of Research Trends for the Scientification of Qigong Exercise*. Yongin: Graduate School of Industry, Myongji University; 2016:47.